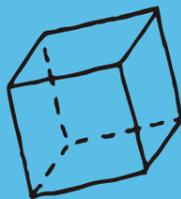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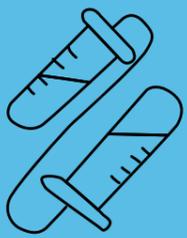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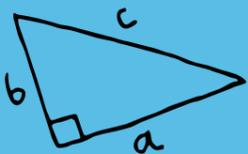


2021학년도 1학기 자기주도적 학습전략 강화 공모전

part 1: 내가 수강한 온라인 우수강의 에세이 공모전
part 2: 나만의 학습전략 사례 공모전



$$(a+b)^2 = a^2 + 2ab + b^2$$



$$S = vt$$



Math

GRAMMAR



교수학습개발센터
CENTER FOR TEACHING & LEARNING



Contents

I 내가 수강한 온라인 우수강의 에세이 공모전

🌱 최우수상

공대생이 반한 윤리 수업 화공신소재전공 20학번 복지원 / 7

🌱 우수상

꿀교양에 대한 고찰 조형예술전공 20학번 박주연 / 12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많던데? '역사는 역시, 화학 명가 강상욱 교수님의 기현이 강의'
..... 지적재산권전공 20학번 이 진 / 17

🌱 장려상

암기가 아니라 이해다 영어교육과 21학번 강희원 / 22

지식과 정보의 통합, 창의적 사고 생활예술전공 21학번 김하정 / 26

II 나만의 학습전략 사례 공모전

🌱 최우수상

커리어 우먼의 동그라미들 컴퓨터과학과 19학번 안선정 / 33

🌱 우수상

수학교육과 1학년에게 부치는 편지 수학교육과 21학번 박소은 / 39

야, 너두 할 수 있어! 읽고 쓰고 '기본'에 충실하자! 역사콘텐츠전공 19학번 이다빈 / 45

🌱 장려상

트리구조 활용하기 역사콘텐츠전공 20학번 이에은 / 51

단 하나의 A+가 되는 길, <기초부터 확장까지> 행정학부 21학번 이하영 / 55

PART

I



내가 수강한 온라인 우수강의 에세이 공모전

최우수상

공대생이 반한 윤리 수업

화공신소재전공 20학번 복지원

제가 수강한 온라인 우수강의는 강 지은 교수님의 ‘현대 사회의 삶과 윤리’강의입니다. 평소에 윤리를 접할 기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공대생 2학년이 도대체 들었던 많은 수업 중에 왜 굳이 윤리 관련 수업을 우수한 강의로 선택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강의명 그대로, 이 강의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매 순간 접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해결 지점을 찾아가는 방법’을 다루고 있는 강의입니다. 지금부터 이 수업이 지닌 우수한 점에 대해 한 가지씩 차근차근 정리해보려 합니다.

1. ‘3단계’로 이루어진 수업체계

중학교 때 들었던 도덕 수업과 고등학교 1학년 때 2개월 동안 바짝 배운 생윤(생활과 윤리) 수업뿐만이 제가 유일하게 윤리를 접할 수 있었던 통로였습니다. 윤리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기에 수업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두려워했고, 솔직히 ‘왜 신청했지.’하는 후회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과 후회는 윤리에 대해 쉬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업 덕분에 금방 없어질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꼭 큰 특색을 갖추고 있어야만 특별한 수업이 되는 것일까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수업이 갖고 있는 사소하고 작은 특색이 어찌면 학생에게 해당 수업을 좋아하게 만드는 큰 이점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업은 교수님께서 수업을 3등분 해서 업로드해주시기 때문에 크게 3교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윤리 문제를 다루고 있는 3학점 교양을 교수님께서 단순히 ‘한 멧덩이’로 세 시간짜리 강의를 올려주셨다면, 아마 무척 버거웠을 것입니다. 또한 이 3등분은 각각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1시간씩 잘라져 올라오는 것과는 거리가 멍니다.

‘1교시’는 주사를 맞기 전에 간호사님께서 주사 부위를 먼저 알코올 솜으로 문질러 주시는 느낌을 지닌 첫 도입부가 되는 시간입니다. 1교시에선 그날 그 수업에서 다루고자 할 윤리적 문제의 실제 사

례들을 통해 주어진 사례에 대해 직접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따로 준비된 도입부 과정 없이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생소한 벤담과 칸트라는 분의 공리주의와 응보주의부터 배웠다면, 환자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냅다 주삿바늘을 바로 찌르는 것과 다를 게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벤담과 칸트의 개념 설명에 앞서 교수님께서선 조디와 메리의 삼쌍둥이 사례를 보여주시며, ‘건강한 조디라도 살릴 것인지 vs 둘 다 죽게 내버려 둘 것인지’의 의견의 대립을 통해 그날 수업에서 다룰 개념을 배우기 전에 필요한 예열과정을 제공해주십니다.

‘2교시’는 마치 언제 주사를 맞았는지도 모르는 시간과 같습니다. 이 수업을 수강하기 전에 적응을 잘할 수 있을지 두려워했던 것처럼 주사를 맞기 전엔 두렵고 조마조마한 마음이 크겠지만, 막상 주사를 맞을 땐 간호사님께서 언제 주사를 놓으셨는지도 모른 채로 끝이 날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2교시는 1교시에서 다루었던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여러 개념에 대해 배워보는 단계를 향하여 물 흐르듯이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앞서 제시되었던 두 가지 의견을 통해 수업의 흐름은 자연스레 각각 벤담의 공리주의와 칸트의 응보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건강한 조디라도 살리는 행위는 이익이나 행복을 증대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벤담의 공리주의란 효용과 행복의 증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실현을 뜻한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조디를 살리기 위해 아직 살아있는 메리를 죽이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기에 분리 수술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고, 이 의견을 통해 ‘칸트의 응보주의란 결과와는 상관없이 행위 자체의 옳음을 추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교시에서는 조디와 메리의 삼쌍둥이 사례를 보고 제기될 수 있는 두 가지 의견을 통해 예열을 마쳤다면 2교시에선 자연스럽게 벤담의 공리주의와 칸트의 응보주의에 대해 배움으로써 학생들은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자신이 내릴 윤리적 판단에 있어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3교시’는 주사를 다 맞았으니 밴드를 붙여주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사를 맞은 후에 밴드를 붙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사 부위가 빨리 낫고, 주사 부위로 다른 균들이 침투하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밴드가 해내기 때문입니다.

환자도 모르게 주사를 놓았더라도, 즉 개념을 자연스럽게 배웠더라도 학생들은 새로 들어온 개념에 얼얼해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 교수님께서선 3교시에 저희에게 다른 시칭각 자료와 새로 생각해볼 예시들을 던져 주시면서 학생들에게 ‘밴드’를 선물해주십니다. 한마디로, 3교시에선 2교시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응용해보는 수업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앞서 1, 2교시에서 ‘삼쌍둥이 사례’와 ‘공리주의와 응보주의’ 수업을 거쳤다면 3교시에선 ‘산모를 구하기 위해 수술을 진행했지만 태아가 죽게 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앞서 1, 2교시에서 배운 개념을 토대로 주어진 문제에 대해 한 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벤담의 공리주의와 칸트의 응보주의를 다 배운 상

태였지만 저의 경우, 산모를 살리는 행위가 선인 동시에 태아가 죽는 것은 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예외적인 상황 속에서 당황하고 있을 때 교수님께서 이중결과의 원칙이라는 새로운 개념 설명을 통해 산모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태아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므로 주어진 사례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단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처럼 3교시는 추가 사례나 익숙한 영화 같은 친숙한 자료를 통하여 수업 속에서 헤매고 있을 학생들이 다시 한번 챙김 받을 수 있는 시간이고, 추가적으로 배운 개념과 판단 방법을 통해 학생들은 그날 배운 수업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수업을 요약하고 있는 제 글을 읽으신 것만으로도 지금 벤담의 공리주의와 칸트의 응보주의에 대해 쉽고 자연스럽게 알게 되시진 않았나요? 어찌 보면 단순하게 나뉘었을 수도 있는 3등분은 각각의 의미를 지닌 3단계 수업이 되어 저와 같이 헤맬 수 있는 학생들에게 윤리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해주는 따뜻한 수업이 되었습니다. 이외에 교수님의 나긋나긋하고 따뜻한 목소리도 수업의 이해도를 높여주는 요인 중 하나에 해당했습니다. 수업을 듣기 전엔 ‘밴드’가 한 개도 없는 학생이었지만 수업을 마친 저에게 지금 여러 개의 알록달록한 ‘밴드’들이 존재하고 이를 통해 저는 수업 전보다 더 다채로운 방법으로 윤리적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는 교재와 추가자료, 그리고 시험

현재 하고 있는 과학 분야 공부는 수업에서 배운 개념을 응용함으로써 산출해낼 수 있는 결과물의 범위가 무궁무진하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업시간에 개념을 배울 때 소위 말하는 ‘Fact’에 대해서만 익혀야 하는 아쉬움이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해 온 ‘정해진 사실을 익혀야 하는 과학 공부’와는 달리 이 수업은 저에게 ‘생각해볼 기회’를 선물해주는 강의였습니다. 이 수업은 개념만큼, 아니 어쩌면 개념보다 저의 생각과 판단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특히 이 강의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엄지손가락의 너비보다 작은 교재는 두껍기만 한 서적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읽어보기에 좋으며, 제목이 모두 질문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 chapter를 읽기 전에 스스로 질문을 해보고, 다 읽은 후엔 스스로 답변을 내릴 수 있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또한 교재가 다양한 사례와 많은 철학자들의 의견으로 다채롭게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수업의 제목에 대한 생각을 이끌어내는 것은 어려움 없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 교재 이외에 교수님께서 추가로 제공해주시는 자료들은 소소한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 <겨울왕국> 추가자료를 통해서 기존에 영화를 봤을 때 떠올리지 못했던 ‘영화 <겨울왕국>이 왜 인기가 있었는지?’, ‘주인공 엘사와 현대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것들에 대해 떠올려볼 수 있고, 이 추가자료는 메인 개념인 ‘피로사회’로 물 흐르듯이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여줍니다. 교재와 추가자료를 통해 생각할 기회를 가져보았다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통해서 자신이 생각한 바를 발휘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중간고사는 하나의 영화를 선택하여 영화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찾아 제기한 후 분석하는 과제였

습니다. 저의 경우, 과제를 위해 새로운 영화를 시청하기보다는 봤던 경험이 있는 영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싶어 기존에 봤던 영화 <택시 드라이버>로 선정하였습니다. 영화를 처음 보았을 땐 그저 즐거이만 파악하는 정도로만 감상했었지만 다시 영화를 감상해보니 ‘한 소녀를 구해낸 주인공은 원래 대통령 후보를 죽이려 했던 사람인데 이런 주인공을 잘했다고 할 수 있는지?’, ‘포주들은 범죄의지 교정과 도덕적 교화 없이 바로 죽임을 당했는데 이는 과연 올바른 처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제기해보고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맘껏 작성해볼 수 있었습니다.

기말고사는 수업에서 다뤘던 쟁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작성해보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답만을 요구하는 시험만 봐왔던 저에겐 매우 새로운 시험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정답의 틀은 갖추어져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제 생각을 아낌없이 적어낼 수 있었던 점이 기존 시험과는 다른 특별함이었습니다.

3. ‘발전 가능성’이 열린 강의

매일 달라지는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현대인들이 마주하는 윤리적 문제도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다루고 있는 수업의 내용은 이에 따라 당연히 변화하게 됩니다.

코로나 19사태를 예로 들자면, 코로나 19가 발생함에 따라 현대인들의 삶은 질병 발생 이전과의 삶과는 많이 달라졌고 여기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와 문제해석의 범위는 이전보다 달라지거나 넓어졌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을 비밀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투명성을 가지는 사회인 ‘투명사회’에 대한 장점에 대해 생각해볼 때 만일 코로나 19사태 발생 전이라면 ‘범죄의 사각지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나와 가족들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근거를 내세울 수 있지만, 코로나 19사태 발생 후에는 ‘코로나 19 확진자 동선이 빠르게 파악되어 더 많은 확산을 막을 수 있다.’라는 근거까지 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발생 전 시대는 세계화 과정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였지만 코로나 발생 후엔 사람들 사이의 단절, 손 씻기와 마스크 등의 방어행동이 새롭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발생 이후의 사회는 19세기 이전과 같은 면역학적 시대의 모습(나와 남 사이에 뚜렷한 경계선이 그어진 시대)을 다시 보임에 따라 질병 발생 이전 사회와는 다른 윤리적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만을 통해서라도 벌써 현대 사회에서 많은 점들이 달라졌고, 코로나 19 이외에도 많은 요인들에 의해 현대인들의 삶은 매일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수업은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는 세상을 다루고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세상에 따라 매년 새로워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윤리와는 거리가 아주 멀었던 제가 수업+수업자료+시험이 모두 잘 갖추어진 이 수업을 들음으로써 윤리적 문제에 대해 어떻게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문제 해결 지점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깨닫게 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같은 윤리적 문제를 어떻게 각자 다르게 해석했는지에 대해 공유해볼 수 없다는 점이 유일한 아쉬움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맨 처음 1주차 수업에서 코로나 19의 문제는 대처방법이 협력보단 혐오에 시선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는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감염&사회&도덕 문제에 대해 국제 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한 의견을 가지는 것이라고 제시해주시면서 윤리적 문제와 해결점에 대한 제시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1주차엔 윤리를 두려워만 했던 제가 이제는 15주차 수업을 모두 마친 학생으로 거듭남으로써 교수님이 보여주신 예시와 같이 지금 제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의 문제와 해결점을 스스로 판단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찌 보면 추상적일 수 있는 해결점에 대해 직접 무엇을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탐색해보며 이를 직접 실행으로 옮기는 시민이 되고자 노력해야겠다는 자세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자세만 갖춘 시민이 아닌 행동으로 옮기는 시민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같이 윤리와 거리가 멀어 두려움을 지니신 학생분들이 있다면 한번쯤은 이 수업을 들어보는 것을 꼭 추천 드립니다.

우수상

꿀교양에 대한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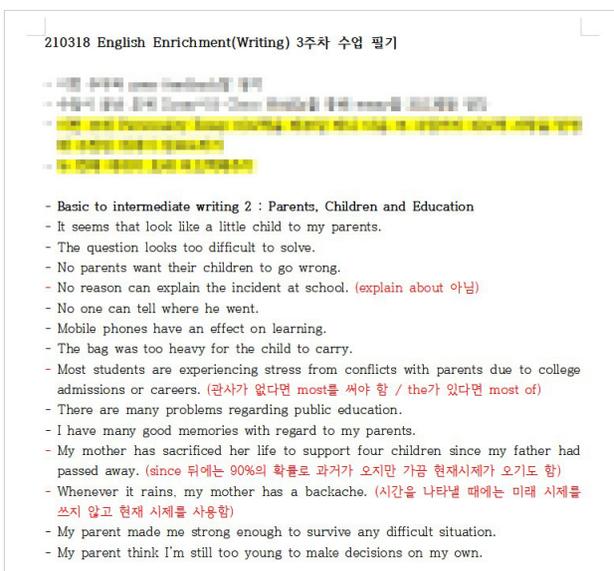
조형예술전공 20학번 박주연

학기 초나 학기 말이 되면 학교 커뮤니티에서는 ‘꿀교양’을 추천해달라는 글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학기에 한 번은 어김없이 올라오는 이 글에는 다른 게시물들보다도 빠른 속도로 댓글이 달리며 댓글란은 자신이 들었던 ‘꿀교양’에 대한 간증으로 빼곡히 채워진다. 그렇다면 꿀교양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꿀교양은 보통 과제의 양이 적고 수업도 어렵지 않으며, 시험이 없거나 시험의 난이도가 낮아 학점을 잘 얻어갈 수 있는 교양을 일컫는다. 학점은 본인의 미래나 장학금과 직결되어 있기에 이러한 꿀교양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필자 또한 지금껏 이러한 교양들을 선호해왔다. 하지만 필자는 이 ‘꿀교양’이라는 단어에 정반대의 뜻도 숨어있다고 본다. 수업이 쉽지 않을지라도 얻어갈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는 교양이 어찌면 ‘꿀교양’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차지해야 하리라고 보는 것이다. 사실 ‘꿀교양’이라는 개념 자체는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도 존재했지만 전염병의 확산으로 수업 체계가 바뀌면서 기존의 ‘꿀교양’은 위상이 달라지게 되었다. 전염병 걱정 없이 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다가 비대면 수업이 불가피해진 시점에 교수자들은 새롭게 비대면 수업의 커리큘럼과 진행 방식을 고안해야 했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강의의 틀이 바뀐 탓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진행한 우수 강의를 찾아낼 수 있었고 이 강의로 인해 꿀교양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게 되었다. 지금부터 2021년도 1학기에 필자가 수강했던 ‘꿀교양’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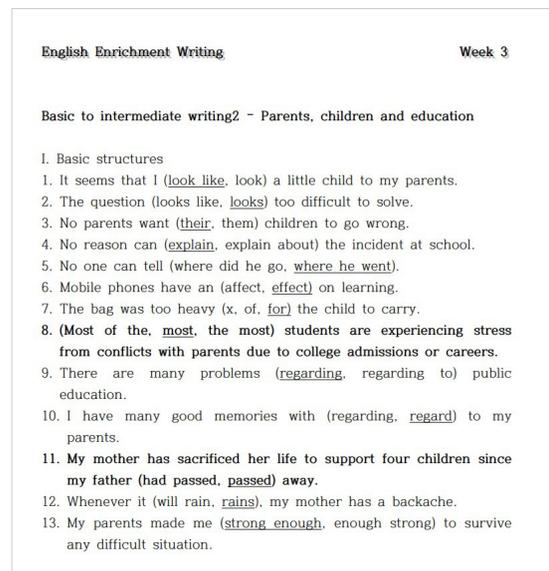
필자가 소개하고자 하는 강의는 이연숙 교수님의 ‘English Enrichment(Writing)’이다. 이는 매주 에세이 작성에 도움이 되는 문법과 표현을 배우고 영어로 에세이를 작성하는 강의로, 작성한 에세이에 대한 피드백까지 주고받으며 영어 쓰기 능력의 향상에 큰 도움을 주는 수업이다. 이 강의는 한 학기 내내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쓰기 실력의 향상을 위해 중간고사 전까지는 짧은 에세이를 쓰다가 8주차부터 긴 에세이를 작성하였다. 또한 8주차부터는 어느 정도 숙련된 감이 있기에 동급생들에게 에세이를 공개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았다. 옥스퍼드사의 교재에서 발췌한 동급생 피드백

(peer editing) 전용 활동지를 통해 피드백을 작성하였고, 수업 시간에는 이 옥스퍼드사의 교재 중 일부와 교수님이 직접 제작하신 교재를 통해 문법과 영어 표현을 배웠다. 이렇게 한 학기동안 수업을 들음과 동시에 총 7개의 에세이를 작성하였으며, 앞에서 언급했듯 모든 에세이는 교수님과의 피드백 이후 수정을 하는 퇴고 과정을 거쳐 다시 제출됐다. 2학점 수업으로 일반교양에 해당되는 강의이지만 3학점 수업 못지않은 과제 양과 시간이 부과됨을 알 수 있는데, 필자 또한 이 부분이 신경 쓰였지만 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이를 간과하게 되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필자는 이 수업이 2학점이기 쉬운 ‘필교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신청했던 바 있다. 핵심교양도 아니고 전공 강의는 더더욱 아니니 쉽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청했지만 생각과는 달라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다. 첫 수업에서 가진 에세이 작성 시간에는 당황스러움과 급격한 두뇌 회전으로 인한 두통을 느끼며 수강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점점 쓰기 실력이 향상됨을 느꼈고 영어로 글을 쓰는 것에 재미를 붙이게 되면서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오히려 수업에 몰입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필자가 이 강의를 추천하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지금부터 이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이 수업을 수강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의 습득이 가능했다. 이 수업에서 목표로 하는 것이 ‘에세이 쓰기’이니만큼 구어체와 같은 비격식적인 어체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읽히는 에세이 작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을 알 필요가 있었다. 이미 한국에서 필수 교육 과정에서부터 영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영어 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지만, 유학을 다녀오거나 원어민 교사와 많은 시간을 들이며 영어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한국인이 실제로 영미권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연스러운 표현들을 습득하기는 쉽지 않다. 숙어나 전치사를 언제,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 또한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것이 아니고서야 잘 알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렇듯 사소한 부분을 신경 쓰는 데서 글의 질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의외로 스스로 짚어 내거나 누군가에게서 배우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이 수업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꼬집어



▲ 수업 당시 필기해둔 3주차 문법 문제에 대한 답안 및 설명



▲ 교수님께서 제공하신 3주차 문법 문제에 대한 답안지

- 간단한 작문
 - An advice(복수형 없는 명사) or an proposal(suggestion) that parents give to their children can sound like a nitpicking(could preaching). (셀 수 있는 것에는 복수형을 붙여주는 것이 좋음)
 - I think parents don't know(recognize) what we think and what we want to do. (parents don't seem to ~)
 - Many parents think smart phones can have a negative effects on their children.
 - Being exposed to violent games frequently has a negative effect/impact on personality of children.

1. The advice or suggestions of parents to their children could/might sound like preaching/ scolding.
 2. It seems parents do not know what we think and want to do.
 = Parents don't seem to know...
 3. Many parents think smart phones can have a negative impact on children.
 4. Being exposed to violent games frequently has a negative effect on children's personality.

▲ 수업 당시 필기해둔 3주차 작문 문제에 대한 답안 및 설명

▲ 교수님께서 제공하신 3주차 작문 문제에 대한 답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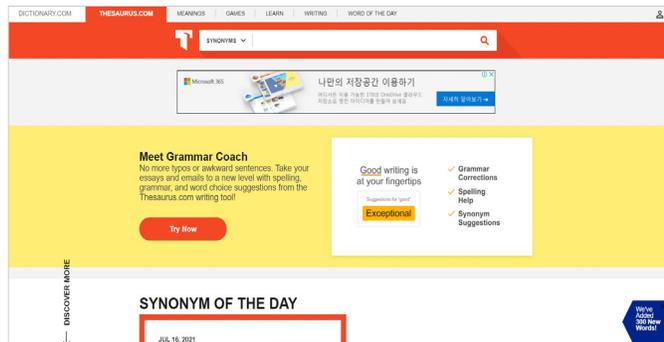
서 알려줌으로써 영어 글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수업에서는 각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내거나 간단한 문장 작문을 통해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을 익혔는데, 그동안 알고 있던 표현과 그 쓰임이 달라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점점 정립이 되면서 에세이를 쓰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게다가 교수님께서서는 번역기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에세이 쓰기에서 이러한 자연스러운 표현의 습득 효과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알고 있는 표현 내에서 독자적으로 작문을 진행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었고, 의존적인 성향을 버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수업을 통해 영어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팁을 얻어갈 수 있었다. 필자가 영어로 글을 쓰는 것에 대한 기초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종종 문법이나 영어 표현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헷갈릴 때도 많았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교수님께서 수업에서 이러한 부분을 충족해 주셨지만 매번 교수님께 질문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나 아래에서 다시 언급할 교수님과의 피드백에서 이러한 부분을 채울 수 있었다. 아무리 퇴고를 여러 차례 거친다고 하여도 다른 사람의 조언만큼 확실하게 느껴지는 수정 방법은 없는데, 필자 또한 과제를물 퇴고하면서도 분명 어딘가 잘못된 것 같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이를 짚어낼 수는 없었다. 그러나 교수님과 함께 작성한 에세이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여러 팁을 얻어갈 수 있었다. 특히나 필자는 같은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여 에세이를 지루하게 만드는 경향이 강했는데,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짚어내시고 조언을 해주셨으며 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이트 또한 추천해주셨다. 이는 'Thesaurus.com'이라는 사이트로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단어의 유의어를 여러 가지 제공해주는데 유의어의 개수가 많아 유의어 검색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으며, 추천해주는 단어의 개수가 많은 만큼 다양한 어휘 습득에도 도움이 되었다.

corpus 1000 3000 10000 20000
 SAT GRE
 loam은 그 안에 속하는 단어가 아님
thesaurus
 단어제한 x (좀 넘쳐도 상관없음)
 제목 수정 (동기 부여하는 것이 주요 맥락 아님?)
 같은 단어의 반복 피하기 (press children)

▲ 4주차 피드백 진행 도중 작성한 메모



▲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신 유의어 사전 사이트 (Thesaurus.com)

이후 에세이 작성 시 같은 단어의 반복으로 인해 에세이가 지루하게 느껴진다거나 거슬리는 부분은 해소되었고 향상된 에세이를 작성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교수님 또한 추후에 있었던 피드백에서 이 부분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시는 일은 없었다. 이는 한글로 글을 쓰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는데,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중복어의 사용을 피하는 습관을 들임으로써 한글로 글을 쓸 때도 지루하지 않게 글을 구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수업만의 특별한 활동인 교수님과의 1:1 과제 피드백을 통해 확실한 영어 글쓰기 실력의 향상이 가능했다. 피드백은 수업 도중에 진행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수업이 끝난 이후에 진행이 되었다. 학생과 상의를 거친 후에 일정을 조정하여 화상 회의 프로그램으로 정해진 시간에 피드백을 하였는데, 이러한 추가 시간에 진행한 피드백이 다른 강의와 확실히 차별화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학교의 모든 강의를 수강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교양이나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수업 시간 외에 교수님과 다시 만나 수업의 연장선 격인 시간을 보낸 적은 없었기에 더욱 그렇게 느껴졌다. 사실 학원 수업이나 과외를 듣는 것은 아니기에 이렇게 교수자가 학생에게 수업 외의 시간에 본인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만큼 이는 교수님이 학생에게 쏟으시는 열정과 시간에 감복하여 오히려 필자가 반성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피드백 시 교수님께서 학생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셨는데, 사소한 부분도 칭찬해주셨고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언급하시고 넘어가셨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 교수님께서 건네신 격려는 필자가 자신감을 고취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교수님의 피드백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했기에 더욱 빛을 발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수업은 수강하는 학생의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대면 수업으로 피드백을 진행했을 시 교수님과 학생 모두 피드백을 직접 받으러 학교로 이동하는 등 시간이 많이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진행한 비대면 수업이 오히려 피드백을 용이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됐다면 피드백 까지 진행하는 데에 무리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비대면 수업을 시행함으로써 장소와 시간 제약을 덜 받으면서 피드백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전공 강의라도 코로나 감염의 가능성이 팽배하는 지금 시국에는 교수님과의 교류가 어려울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진행한 덕택에 필자는 어떤 교양 강의 보다는 마음 놓고, 활발하게 교수님과 소통할 수 있었다.

앞에서 언급했듯, 강의 수강 이후 필자는 영어는 물론이거니와 한글로 글을 쓰는 데에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 영어로 에세이를 쓰는 것과 한글로 에세이를 쓰는 것에는 언어의 차이만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유의어나 자연스러운 언어의 표현에 대해 신경 쓰는 방법 등을 배우면서 언어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다. 실제로 교수님께서도 매 피드백마다 쓰기 실력의 향상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칭찬을 해주셨고, 동급생에게서 받은 피드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물론 이 강의의 성적 또한 최고점을 받으며 이번 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English Enrichment(Writing)	교선	2	9.00	A ⁺
-----------------------------	----	---	------	----------------

▲ 해당 강의에서 받은 성적

9. What advice can you give the writer to improve the essay?

점성적으로 여러가지 습관은 큰 용에서 지인 장속에서 것 같다.

나아 먼 용만 보면 되어진다.

▲ 동급생 피드백에서 학생에게 받은 조언 1

9. What advice can you give the writer to improve the essay?

: 너무 잘 쓴 글이라 특별한 조언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 동급생 피드백에서 학생에게 받은 조언 2

또한 에세이를 작성하면서 논리적이고 일관적인 전개를 펼치는 방법을 배우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는 훈련을 함으로써 다른 과제를 수월하게 수행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에세이를 쓰는 과정에서 과제의 서론, 본론, 결론을 구성하고 이에 맞는 근거와 자료를 찾는 훈련을 자연스럽게 함으로써 다른 교양 수업의 과제를 어떻게 구성할지 계획하고 자료를 조사하는 것을 쉬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필자는 하나의 수업만으로 다양한 배움을 얻어갈 수 있었고 ‘꿀교양’의 정의를 다르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처음 이 강의를 듣기로 결심했을 때 그저 쉬운 ‘꿀교양’이라고 생각하여 발걸음을 들인 것이었지만, 훨씬 성장된 자신을 느끼면서 달달한 보람이라는 색다른 맛의 꿀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소위 ‘꿀교양’이라고 불리는 다른 교양을 수강한 후 쉽게 좋은 성적을 얻었던 경험과는 달리 확실히 더 농도가 짙고 달콤한 것이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필자는 앞으로 수강할 다른 수업에서도 이번 경험에서 느낀 것과 같은 달달함을 맛보기 위해서 다른 ‘꿀교양’을 찾아 나서고자 한다. 이 글을 읽는 학생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꿀교양’을 찾아 그 농도가 남다른 달콤한 꿀을 맛보는 경험을 하길 바란다.

우수상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많던데?』 ‘역시는 역시, 화학 명가 강상욱 교수님의 기현이 강의’

지적재산권전공 20학번 이 진

1. 서설

본 필자는, 본인이 직전 학기에 수강했던 교과목, ‘기초과학과 현대산업 제품군의 이해’(이하 기현이)라는 강의를 소개, 및 추천하는 과정을 한 학기 동안 느꼈던 경험을 기반으로 느낀 본연의 감정을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글을 제시함을 밝힌다. 그렇기에 해당 공모작의 첫 화두는 본인이 해당 교과목을 접하고, 수업을 희망하게 된 계기를 밝히며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필자는 인문사회과학대학에서 인문콘텐츠학부에 소속하며, 지적재산권을 수강하고 있는 20학번 학생이다. 즉, 인문계열의 교과목을 전공하고 있으며, 본인이 판단하기에 있어 본인은 이공계열 및 공과대학의 교과목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학부생이다. 그뿐만 아니라, 혹자가 본인을 칭함에 있어 ‘진성 문과 학생’이라고 불리기도 할 정도로 본인은 인문, 사회 계열에서 요구하는 주요 역량에 강점이 있다. 이러한 본인이, 어떻게 화학을 기반으로 한 과학 및 산업군을 공부하는 강좌를 수강하길 희망했는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 계기를 다음 항목에서 연번 아래 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하겠다.

2. 강좌 수업을 희망하게 된 계기

가장 원초적인 첫 번째 계기는 해당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님의 명성에 관한 관심이었다. 본인 또한, 화학 에너지공학과와는 접점도, 관련도 없지만 ‘강상욱’ 교수님에 관한 많은 호평을 주변 동기나 선배를 통해 들을 수 있었다. 실제로 우리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 중 다수는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더라도 교수님의 성함을 알 정도로 교내에서 강상욱 교수님은 명품 강의의 대명사이자, 상명대학교의 이름을 외부적으로 빛내주시는 교수님으로 불리고 있었다. 그렇기에 본인 또한, 교수님께서 2020년 교육부 학술, 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되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바를 재학하며 인지하고 있었기에 재학 중 꼭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졸업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두 번째 계기는 본인이 학습 방향성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한 데 있다. 필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문계열 학생이지만, 앞으로의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융, 복합적 역량의 함양 및 도모가 필연적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해당 사유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필자는 입학 이래로 수많은 비교과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실행해왔다. 그 과정에는 전공 교과목의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주제도 존재했고, 타 전공과의 교류를 포함한 학제적 연계를 통해 진행한 활동도 많았다. 대회와 프로젝트에 다양한 주제로 결과물을 출품하는 과정과 경험을 쌓을수록, 앞으로의 미래 사회를 주도하는 인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융, 복합적 이해 및 학습은 필수불가결하다고 느낀 것이다. 즉 해당 지점에서 기인한 동기는 21학년도 1학기 중 계획하는 이공계열 연계 융복합 프로젝트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좌를 수강하고 싶다는 계기로 나아갔고, 기초과학과 현대산업 제품군의 이해 교과목 수강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한 내용은 이후 항목에서 자세히 다룸을 밝히고 넘어가도록 한다.

3. 해당 교과목에서 제시하는 수업 방식

기현이 강좌의 일반적인 수업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산업 동향과 관련한 내용의 학습이고, 두 번째는 해당 산업 및 산업군과 관련한 이론을 배우게 된다. 예를 들어 해당 내용을 바라본다면, 수(水)산업과 관련한 산업 동향을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 세계 물 시장의 전반과 종류, 국내외 기업의 현 수산업 포진 상황, 해수 담수화 기술과 관련한 종류, 필터 기술 등이 존재한다는 점과 그 전반을 먼저 인식한 후, 해당 기술이 어떠한 원리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학습한다. 물 산업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해당 필터 기술에서 제시되는 역삼투 현상과 관련한 이론을 배운 바 있다. 강의를 통해서 앞서 언급한 물 산업을 포함하여 기체 산업, 화장품 산업, 제약 산업, 뇌과학 산업, 배터리 산업, 바이오의약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등의 동향과 특정 기술과 관련한 이론 지식을 폭넓게 공부할 수 있다.

4. 해당 수업 방식의 장점

이와 같은 수업 방식이 단순하고 일반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필자와 같이 화학과 관련한 이론 지식의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인문계열 및 예체능 계열의 학문을 전공하는 개인에게 있어서는 큰 메리트로 작용한다고 판단한다. 단순히 이론 측면에 집중된 수업 방식을 넘어, 화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관심도를 향상할 수 있으며, 그 배경에 관한 교수님의 스토리텔링 수업 및 산업과 근래의 신기술에 관한 설명은 어렵게 생각했던 과학이 우리 주변에 만연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여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궁극적으로, 산업군과 기술이 어떤 과학적 원리 아래에서 작용하는지 궁금하게 만들어내는 교수님만의 수업 노하우는 앞서 언급한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게끔 한다고 사유한다.

5. 해당 수업의 상호작용

본 수업에서는 타 강의와 차별화되는 수업의 상호작용이 두드러진다고 언급하고 싶다. 먼저, 해당 강좌를 운영하는 교수님께서 약 90명의 학생 모두의 이름을 외우고자 하신다는 데 차별성이 있다. 이를 위해 강의를 수강하게 된 계기와 재학생의 사진을 포함한 자기소개서를 제출받고,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학과와 이름을 기억하신 후, 수업 중에 개별적으로 학생들을 호명하며 수업을 진행하신다. 이는 한 강의를 운영할 때 수강하는 학생의 수가 많은 대학이라는 장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닐 것이다. 이는 대면 수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온라인으로 녹화된 강의를 수강하는 중에도, 학생들의 이름을 언급하시며 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을 볼 수 있다. 아마 강상욱 교수님의 수업을 수강한 학생이라면 온라인으로 녹화된 강의를 들으면서도 현장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듯한 착각을 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사유하는 바이다.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이를 설명하자면, 실제로 온라인 녹화 강의를 들을 때 본인의 이름을 교수님께서 호명해 주실 때마다 학습 의욕이 상승하는 것을 느낀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름을 불러주실 때마다 웃음이 나고 굉장히 기분이 좋고 만족감이 든다고 말하고 싶다. 교수님께서 학생 한 명 한 명마다 기억하고 신경 써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일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그 정도로 교수와 학생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및 유대감이 학습의 질 제고로 이어진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은 바이다.

두 번째로, 한 주차의 강의를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학생들은 당일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3문제의 상호작용 퀴즈를 출제 받는다. 이때 해당 퀴즈의 답은 이캠퍼스를 통한 메시지로 제출하게 되고, 이는 교수님께서 확인 후 피드백, 즉 환류의 과정을 통해 정답을 확인받게 되며, 이는 학생들이 본인의 학습 정도를 체크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 피드백의 답변에는 당연하게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별적인 특성에 기인한 교수님의 한마디 따뜻한 인사가 담겨 있기에, 한 주마다 퀴즈 답안을 제출하는 일종의 출석확인을 위한 ‘과제’임에도 기분 좋게 제출하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강상욱 교수님의 강의 마지막 주차에는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하나의 추가적인 영상이 업로드된다. 해당 영상에서는 교수님께서 상명대학교에 재학하며 본인의 운영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을 위해 꼭 전해주고 싶은 진심 어린 충고와 삶의 지혜를 포함한 따뜻한 위로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강생 전원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모두를 제자로 기억하고자 하신다는 말을 남겨주시는데, 본인이 해당 영상을 시청하며 느꼈던 그 감동은 아무래도 텍스트로 대체할 수 있는 감정은 아니라고 판단하며, 본인의 우수강의 추천이 많은 재학생에게 닿아 직접 수강하고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6. 해당 교과목의 학습 목표와 특징

기현이 교과목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습 목표는 본인과 같은 인문/사회/상경/예체능계열 학생들이 기초 과학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지침이 됨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공계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과학지식의 이해를 심화하고 사고를 확대하고자 하며, 이를 기반으로 실제 제품군에 적용되는

과학원리 습득을 도모하게 하는 것에 그 교과목의 목표가 있다. 해당 목표를 고취하기 위한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계열별 학생들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계열별 상대평가를 채택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교양과목이지만, 아무래도 화학을 기반으로 제시되는 이론 수업이기에, 화학, 화학에너지 공학과 학생들과 이공계열 학생들에 대비한 인문사회예체능계열 학생들이 걱정하는 간의 지식 격차에서 발생하는 성적 불안을 최소화하고 많은 학생에게 수업의 참여 의욕을 고취하여 화학이라는 학문에 관한 관심과 재미를 느끼게 해주고 싶으신 교수님의 배려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론과 관련한 수업은 교수님의 판서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산업 동향을 이해하는 수업에서는 교수님께서 미리 준비한 수업자료를 기반으로 진행한다. 수업자료에서는 산업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계나 사진을 포함한 시각자료가 함께 제시되기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강점이 있으며, 온라인 녹화 수업에서도 화면을 분할 녹화하여 판서와 시각자료를 구분하여,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시적인 불편을 겪지 않게끔 제공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7. 본인이 해당 강좌를 통해 얻게 된 점과 프로젝트의 연계

먼저, 필자는 해당 강의의 수강으로 인해, ‘화학’이라는 학문에 지대한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단순히 수강한 일반 교양 수업이, 앞으로의 본인의 미래와 진로를 새롭게 고민하게 해준 원동력이 된 것이다. 실제로 필자는 종강 당시 화학에너지공학을 다전공하는 방향과 혹은 화학 전공 과목을 포함한 자기설계융합전공의 커리큘럼을 만들어 앞으로의 학습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울 정도로 큰 관심과 재미를 느끼게 되었던 것 같다. 인문계열을 전공하고, 과학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던 개인이 화학과 관련한 미래를 꿈꾸게 하였다는 것은 본인에게 있어 정말 큰 의미로 다가온 것 같다. 또한, 해당 과목에서 배운 산업 동향을 기반으로, 앞으로 도래할 미래 사회에 어떤 역할을 갖추어야 하는지, 어떤 분야를 유심히 지켜보고 진입의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 본인만의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융, 복합적 역량을 기반으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앞으로의 혁신 사회를 주도하는 글로벌 인재로 발돋움하기 위한 간학문적 연계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히고 싶다고 사유한 바 있다. 해당 연계의 고취를 위해 본인은 학기 초 계획했던 프로젝트에 더해, 교과목을 수강하는 과정 중에서 계속해서 다양한 비교과 활동에 본인의 주전공과 산업과 기술에 기반을 둔 학제적 연계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던 것 같다.

해당 프로젝트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본 강의에서 제시한 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산출물과 신기술, 그리고 다양한 산업군과 경제 원리 등을 다루는 주제를 주로 선정하게 되었다. 연구 방향의 확립을 위해서 전공과의 연계를 도모했으며, 그 과정에서는 필자의 전공인 신지식재산권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에 대한 논제에 기반을 두고 반도체 시장과 반도체 기억소자, 반도체 집적 회로의 배치설계 및 기술 보호에 관해 탐구를 진행하여 기업별로 미래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솔루션을 도출하는 계획으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또한, 두 번째로 세계의 산업 판도에서 화두가 되는 이차전지 배터리 산업을 기반으로 운용될 전기차 시장의 동향과 미래가치를 분석하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 사업체를 구성하는 가상 창업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세 번째로는 해당 창업 프로젝트의 심화탐구를 위해 Z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 형태

의 파악과 시장을 분석하고, 경제학, 소비학적 원리와 연계하여 진행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강좌를 통한 학습을 도모하는 비교과 모임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오픈소스 기반 실시간 검색 및 데이터분석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인 Elastic이 타이틀 스폰서로 서포트하는 빅데이터 관련 대회에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의 발전과 이로 인한 현대 사회의 딥페이크 전자금융사기와 관련한 해결책 마련을 도모하는 자리까지도 참여하게 되었다. 이 모든 과정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기현이 교과목을 수강하며 느낀 융, 복합적 역량의 함양 필요성에 있었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도움이 된 과학적 이론의 전반은 기현이 강의에서 다수 기인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하는 바이다.

8. 결론

필자가 미래에 본인의 대학 생활을 회고하고 돌아본다면, 기현이 수업을 들은 경험은 가장 먼저 떠오를 정도로 직전 학기 본인의 삶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해당 공모의 제목으로 본인이 선정한 바와 같이, 소문난 잔치라 그런지 역시 먹을 게 많았던 것 같다. 모든 학생의 존경과 인기를 한몸에 받는 데는 그 비결이 있는 법이라고 느꼈다. 실제로 본인이 수강한 1학기 강좌의 수강생들은 종강 이후 자체적으로 교수님을 위한 온라인 롤링페이퍼를 작성할 정도로 필자와 같이 감명받은 학생들이 많았다. 그리고, 기현이 교과목뿐만 아닌, 본교 명품교양강좌로 미래 생활과 화학 교과목을 상상(祥想)교양강좌로 운영하는 교수님께서서는 최근 제7회 LG 젊은 공업화학인상까지 수상하고, 다양한 방송에 화학 분야의 전문가로 출연하시며 상명대학교의 이름을 알리시며 업적을 쌓아가고 계신다. 그렇기에, 본교의 많은 재학생이 본인과 같이 명가(名家)의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해당 명강의(名講義)를 수강하여 필자가 느꼈던 점들을 직접 체감해 보았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스승으로서 학생들을 기억해 주시는 만큼, 본인 또한 제자로서 어떤 분야든 큰 성과를 거두어 교수님께 제자의 이름과 소문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그렇기에 본인의 학제적 프로젝트의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낸 초석으로 남은 해당 강의의 우수성을 꼭 해당 공모를 통해 많은 이에게 전달하고 싶다.

장려상

암기가 아니라 이해다

영어교육과 21학번 강희원

Prenominal Modifiers? Thematic role? 학기 초에 첫 수업을 들으며 나에게 첫 좌절을 안겨준 내용들이었다. 영어 교사로서의 꿈을 오래 전부터 꿈꿔왔기 때문에 대학에 와 내가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깊숙이 공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설렘, 대학 공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첫 강의를 듣게되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PPT는 낯선 영어 단어들과 문장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은정 교수님을 믿고 끝까지 따를 수 있었던 이유들을 나열해보려 한다.

1. 영어 문법 지도법이란?

오은정 교수님의 <영어 문법 지도법> 과목은 사범대 영어교육과, 혹은 영어교육을 복수/부전공으로 선택한 학생들이 수강 가능한 과목이다. 중·고등학교에서 배웠던 문법을 심화하여 특정문법의 원리를 파악하고 실제 문제에 적용해본다. 미래의 교사를 꿈꾸고 있는 재학생들이 추후에 교사가 되어 문법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개념들을 배우는 과목이다. 영어교사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더라도, 영어 관련 직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도 추천하는 과목이다. 수업 시작 전, 수업에 사용될 PPT 자료를 사전에 게시해주셨으며 블렌디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녹화강의와 실시간 강의 녹음의 방법을 병행하신다.

2-1. 암기가 아니라 이해다

이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은 문법을 ‘단순 암기’가 아닌 원리를 이해하여 적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 ‘문법’이라는 과목을 듣는다면 ‘이해’ 보다는 ‘암기’의 비중이 많다고 생각하여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은정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난 후에는 문법이 ‘암기 과목’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더불어 영어도 원리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오은정 교수님이 교재의 내용 이외에도 학생들에게 문법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신 덕분이다.

① **Modification of proper nouns(계속적 용법 O, 제한적 용법 X)**

ex) 계속적 용법

John, who is a linguist, was not impressed by Professor Fish's arguments.

제한적 용법

*John who is a linguist was not impressed by Professor Fish's arguments.

(고유명사의 수식에서 계속적 용법은 사용될 수 있지만, 제한적 용법은 사용불가)

② **Modification of any, every, no(계속적 용법 X, 제한적 용법 O)**

ex) 계속적 용법

*Any man, who goes back on his word, is no friend of mine.

제한적 용법

Any man who goes back on his word is no friend of mine.

(any, every, no의 수식은 계속적 용법에 적용될 수 없고, 제한적 용법은 적용 가능하다.)

*는 비문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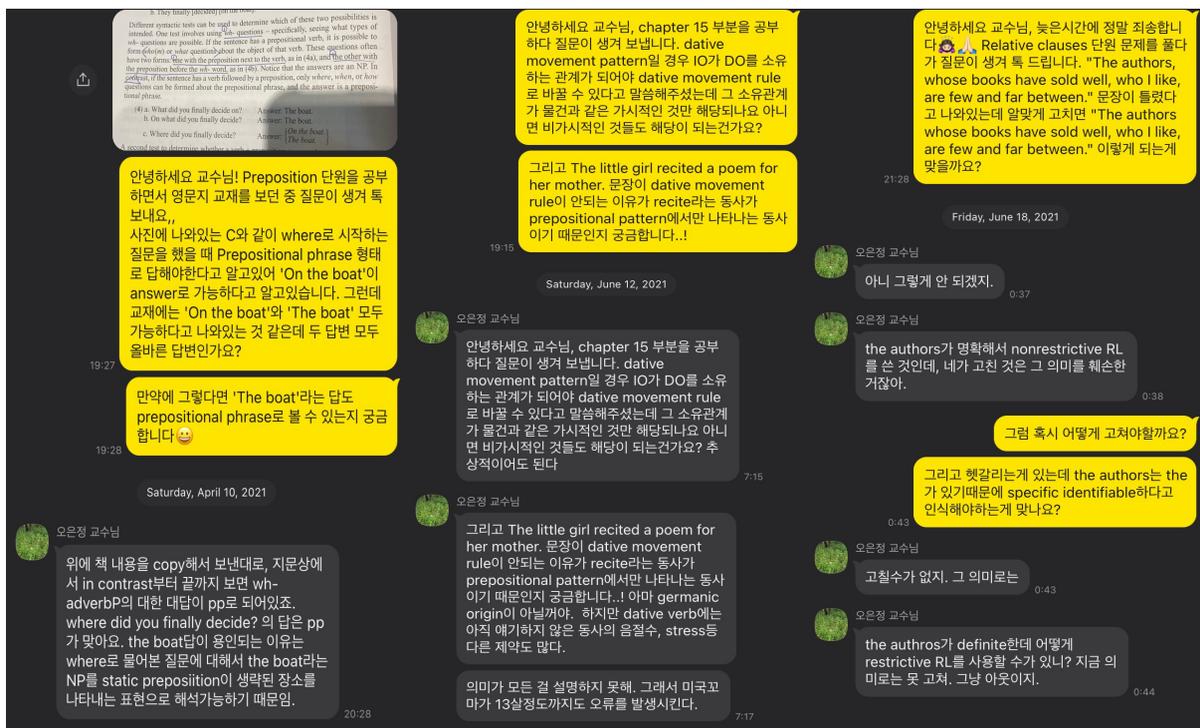
위 부분은 강의 중 'Relative clauses' 단원의 일부이다. 이 단원에서는 특히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전에 문법을 배웠을 때 헷갈렸던 부분인데, 오은정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며 완벽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 가장 기억에 남는다. 위 예문들은 각각 제한적 용법, 계속적 용법을 나열한 것인데 '(,콤마)'가 붙으면 계속적 용법, '(,콤마)'가 붙지 않은 문장은 제한적 용법이다. 이들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전에 알아둬야할 가장 중요한 것은 'Specific identifiable'의 원리이다. 이는 쉽게 설명하자면 특정 구 혹은 단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유무이다. 예를 들어 '강희원'이라는 인물이 문장에서 제시되었을 때 'A girl'이라고 한 경우보다 정확하게 인물을 인식할 수 있다. 이때 '강희원'이라는 고유명사는 specific identifiable 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원리를 이해했다면,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에 대한 차이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다. 먼저 고유명사를 수식하는 1번 경우, 'John'이 고유명사이기에 그 단어가 특정한 사람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특정한 사람임을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에 'John'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면 추가적인 정보로 인식된다. 그 사람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나올 경우 부가적인 의미에서 '(,콤마)'를 붙여줘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 문장은 계속적 용법만 적용 가능하고 제한적 용법이 나올 경우 비문으로 인식된다. 2번의 경우 'Any man'이라는 어구는 man의 정체성이 완전히 오픈되어 정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Any man'을 더욱 specific

identifiable하도록 만들어줄 정보가 필요하다. 이 경우 부가적인 정보임을 나타내는 ‘,(콤마)’가 올 수 없다. 부가적인 정보가 아닌, ‘Any man’을 확실하게 규정지어줄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헛갈리는 두 가지의 개념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해를 통한 학습과 적용을 했기 때문에 기억에 더욱 오래 남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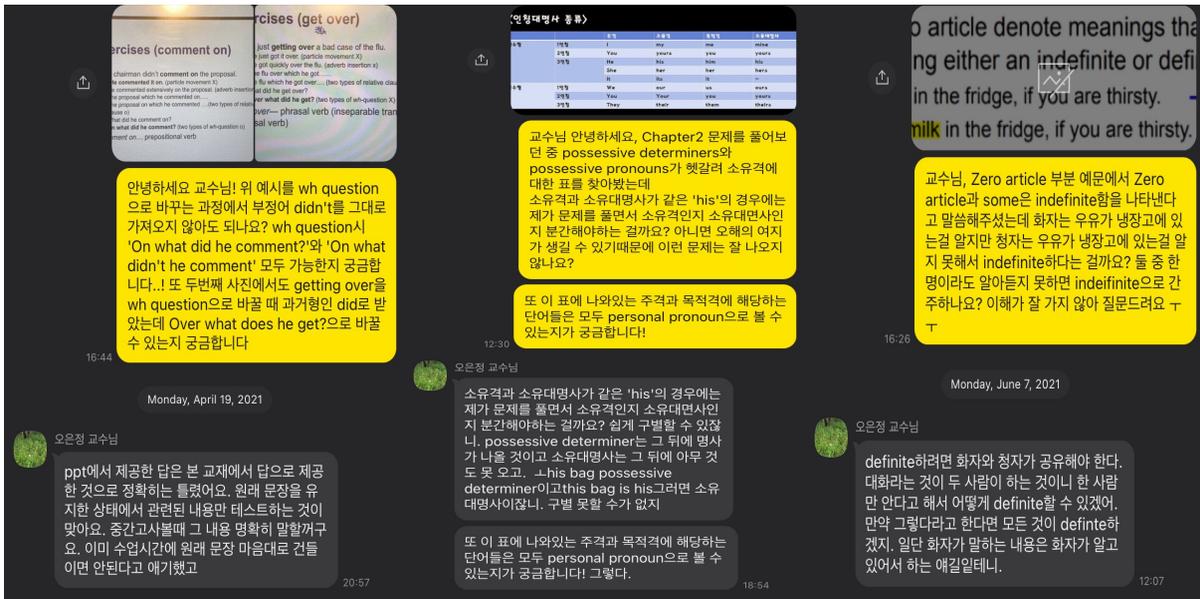
2-2. 궁금한 거 있어? Welcome!

학습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모르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정보를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의문점은 언제든지 생기기 마련이다. 이 의문점들을 해결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조력자는 교수님이라고 생각한다. 영어 문법 지도법 과목을 수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원리에 대한 질문, 문제를 풀며 생기는 의문점들을 e-campus, 카카오톡, 문자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며 그 덕분에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시험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을 통해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어떠한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아는 것 또한 시험의 순기능이라고 생각한다. 오은정 교수님께서서는 시험이 끝난 후 개개인에게 e-campus를 통해 시험에 대한 결과를 안내해주셨다. 더불어 틀렸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시험 문제의 오답에 대해 피드백을 받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모집하셨고, Webex를 통하여 틀렸던 문제들의 정답과 이유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셨다. 이러한 교수님의 열정과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잘못 알고 있었던 개념들을 정립할 수 있었다.



[질의응답]



[질의응답]

3. 영어 교사에 한 발짝 가까이

첫 수업을 들었을 때, 여러 차례 문법을 배워왔지만 새로 보는 단어들도 많았으며 심지어 모든 내용이 영어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새로 보는 영단어들과 영어로 된 강의 내용을 이해해야 했기 때문에 완벽히 흡수하지 못한 채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하지만 녹화된 강의의 강점을 살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들으며 필기하였다. 강의를 기반으로 한 내용 이해, 수업시간에 배웠던 원리들을 ‘Teachers Grammar of English’ 예시 문제에 적용해보며 내용을 흡수할 수 있었다. 이 강의를 수강하며 예전에는 무작정 외웠던 문법들이 어떠한 원리에 의해 적용된 것이었고, 형성된 것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리를 습득하는 데 흥미를 느껴 더욱 몰두할 수 있었다. 그리고 훗날 학생들을 가르칠 때, 혹은 후배들에게 모르는 내용을 알려줄 때 배웠던 내용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번 복습하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블랜디드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오은정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처음에는 어려워 했지만 그 과정을 인내하여 A+의 열매를 얻어냈다. 이러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내가 수강할 강의들 역시 열심히 임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본다. 또한 이 강의를 들을 학생들에게도 충분히 이해하고 노력한다면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직한 과목이라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싶다.

장려상

지식과 정보의 통합, 창의적 사고

생활예술전공 21학번 김 하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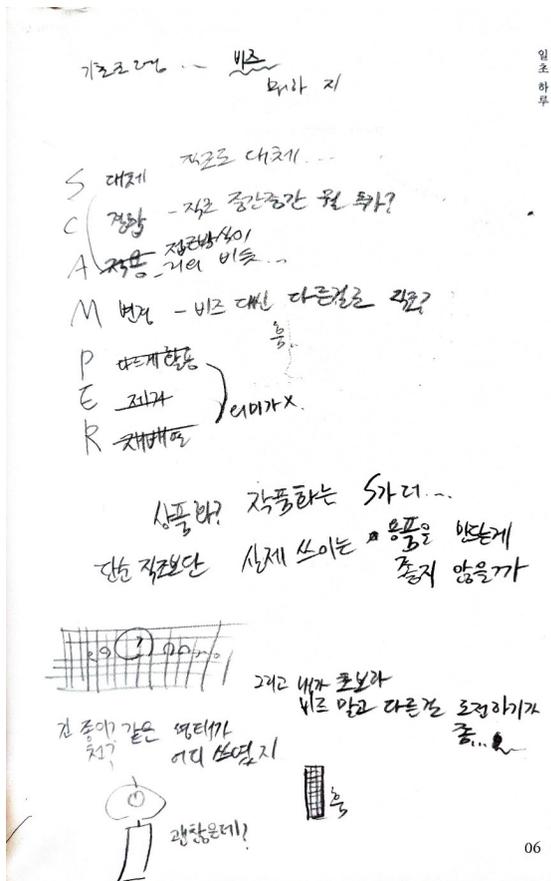
제가 학우들에게 소개할 강의는 이현진, 성운아 교수님의 ‘창의적 사고의 프레임워크’ 수업입니다. ‘창의적 사고의 프레임워크’ 수업은 ‘세계화, 정보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불확실한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의 강화를 위해 창의적 사고기법과 실제 생활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 활용 방법 이해와, 토론(모둠활동)을 활용한 실천을 통해 격심하게 변화하는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실행력, 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수업입니다.

안타깝게도 토론 수업은 코로나 19로 인한 e-campus 비대면 수업 전환으로 인해 1회밖에 진행하지 못하였지만, e-campus 강의 도중에 잠시 수업을 멈추고 각 개인이 생각할 시간을 제공해주시는 등, 토론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녹화된 강의 안에는 창의적 사고에 대한 이론 설명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번 시간에 제시해주셨던 과제물의 정답을 같이 맞춰보거나, 수업을 멈추고 잠깐 생각할 시간을 제공해 주신다거나, 수업과 관련한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시며 학생들이 지속적인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니다.

중간고사는 대체과제로 진행되어 학습했던 창의적 사고 기법 중 SCAMPER 기법을 활용해 아이디어 상품을 만들어 내었고, 기말고사는 이때까지 학습했던 내용의 절반 정도를 시험범위로 오픈북 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저는 ‘창의적 사고의 프레임워크’ 수업에서 단순히 창의적 사고의 이론만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창의적 사고 기법을 실습해 보며 문제를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한가지 문제점에 얽매이지 않고 근원이 되는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얻고, 창의적 사고 기법을 활용해 성공한 사람들의 예를 접하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를 다양한 시선에서 바라보는 능력을 얻었다는 예시로, 전공 과제물을 어떻게 구성할지 여러 가지 초안을 내는 과정에서 창의적 사고 기법인 「SCAMPER」기법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SCAMPER」기법이란 S(substitute: 대체) - C(ombine : 결합)- A(dapt : 적용) - M(odify, Magnify, Minimize: 변경, 확대, 축소) - P(ut to other use: 다르게 활용) - E(liminate: 제거) - R(earrange: 재배열) 총 7가지의 항목들을 사용하여 이미 있는 것의 관점을 바꾸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끌어 내는 기법인데, 전공 선택 수업인 ‘기초조형’ 수업에서 비즈 직조를 이용한 기말고사 대체 과제물을 작업한다고 했을 때, 비즈 직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저는 첫 번째 S(대체) 항목을 사용하며 일본식 풍등(후우링)의 소원종이(탄지쿠) 부분을 비즈 직조로 대체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림 1. SCAMPER 아이디어] 제가 아이디어를 구상했던 노트의 일부분을 첨부하겠습니다. 이렇게 SCAMPER 기법을 활용해 작품을 구상한 후, 비즈직조의 아이디어 스케치를 거치고 만들어진 실제 작품입니다. [그림 2. SCAMPER 결과물] 일본식 풍등의 소원종이 부분을 비즈 직조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림 1] SCAMPER 아이디어



[그림 2] SCAMPER 결과물

위와 같은 창의적 사고 기법은 작품을 구상하다가 생각이 막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을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저는 평소 아이디어 구성 단계에서 ‘아,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 너무

어렵다...' 라는 생각에 가로막혀 다른 생각을 도출해내지 못하는 편이었는데, 단순히 SCAMPER 기법만 활용해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능력이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수업 중 배웠던 여러 가지 사고 기법을 통해 과제물, 프로젝트 구성, 발표자료 제작 등 여러 작업에서 수업에 배웠던 내용들을 활용하며 기존의 고정된 생각을 타파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생활예술전공의 특성상 작품을 직접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일이 많아 배운 기법들을 더욱 많이 활용할 수 있었는데, 저는 이번 자기주도적 학습전략 강화 공모전을 준비하면서도 마인드맵을 통해 글감을 선정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아이디어 창출 기법, 창의적 사고 기법의 활용은 타 전공 학우분들도 충분히 일상생활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시기에 한번 적용시키고 학습하기 시작하면 많은 곳에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됨의 예시입니다. 저는 창의적 사고 기법들은 전부 문제를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는 키워준다고 생각하는데, 일상생활이나 수업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마인드맵' 기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마인드맵 가지를 10가지 이상으로 행복에 대한 마인드맵을 그려보기'라는 과제가 있었는데, 10가지 이상의 가지를 뽑아 내려면 좋아하는 것 하나만을 주제로 삼기는 어렵기에 나의 취미,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음식, 어떤 작업을 수행할 때 행복해지는지 등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하며 마인드맵 그리기를 진행하였습니다. 행복에 대한 마인드맵 작업을 하든, 다른 주제로 마인드맵 작업을 하든, 아니면 아예 다른 기법을 사용해서 행복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든 창의적 사고 기법은 나의 현 상황이 어떤지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황을 생각해본 다음 각 상황에 따른 해결책을 내리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문제를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일을 구조적, 유기적, 연계적이라 생각하여 각 요소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구조를 전체적으로 통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방법인 '시스템 사고'에 대해서도 따로 학습을 하기에, 어떤 문제의 근원을 재빨리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에 굉장히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원래 객관적인 사고를 하는 데에 능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감정의 변화가 적은 편이라 이러한 사고 기법들을 배우고 난 후 더욱 두드러진 것이겠지만, 이 사고들이 능숙해지며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감정에 휩쓸리기 보다는 '왜 이런 일이 생겨났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어 혼란에 빠지는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 상황이 발생해도 더욱 빨리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 사고의 프레임워크' 수업을 들으며 자신의 미래 계획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만다라트' 수업을 들으며 성공한 인물의 사례로 나왔던 일본인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만다라트 기법은 중심 주제를 하나 잡고, 그에 따른 주요주제 8가지, 각 주요 주제에 따른 하위주제(실천방안, 세부 아이디어)를 8가지 작성해 깨달음의 경지를 원과 네모가 끝없이 펼쳐져 나가는 모양으로 표현한 창의적 사고 기법입니다. 오타니 쇼헤이는 일반인이 달성할 엄두도 내기 힘든 만다라트를 작성하고 [그림 3. 오타니 만다라트] 이를 전부 실천했다는 점에서 꽤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림 3] 오타니 만다라트

저도 다른 20대 초반의 학생들에 비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있는 것도 많고, 바쁘게 사는 편 이긴 하지만 막상 제 진로를 위해서 지금 당장 실천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진로를 위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몇 가지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의 구체적인 실행 일시 등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가? 를 생각해 보았을 때는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지의 의문이 드는 것도 있고, 시도할 엄두는 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목표를 수정하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어차피 언젠가는 반드시 실행해야만 하는 것도 있어서 이 수업을 듣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도 바쁜 일정으로 별다른 해결책을 놓지는 못한 채 그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기말고사 전 주인 마지막 수업에서 ‘창의적 사고를 위한 시간관리기법’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과제로 제공된 한일 목록, 시간점검 작성에서는 일주일간 실제로 한 일들을 작성해 보고 그 일들을 중요도와 긴급도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해 보았는데, 제가 일주일간 한 활동들을 돌아보니 학업에 충실하기는 했지만 불필요한 시간도 많이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1학기과 방학은 조금 더 알차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제공해주신 중요도-긴급도의 4가지 표를 바탕으로 해야 할 일을 나누었습니다.(했던 일을 기록하고 나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는 시간관리표와 달리 해야 할 일의 긴급-중요도로 작성하였습니다)[그림 4. 계획표] 이렇게 해야 할 일을 작성하고, 방학 중인 현재에는 과거에 분류해뒀던 것대로 가장 중요한 일부터 차례대로 해결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

니 제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고, 앞으로도 해야 할 일들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행하면 할 일들의 효율도가 훨씬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림 4]. 계획표

	긴급함	긴급하지 않음
중요함	아르바이트 가기 봉사활동 계획하기	저축하기 인터넷 강의 듣기 2학기 시간표 짜기 공모전 제출하기
중요하지 않음	친구랑 만나기 여름 옷 사기	게임하기 휴대폰하기

2021년도 1학기 ‘창의적 사고의 프레임워크’ 수업을 통해 과제물, 프로젝트 등 여러 활동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생산해내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 문제의 본질을 빠르게 파악해 해결하고, 시간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업 PPT 또한 세세하고, 교과목 점수도 과제 및 시험 공부에 열심히 임한 만큼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과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험 공부에도 더욱 열심히 임했던 과목이었습니다.

급속도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현대 사회에 맞추어나가기 위해서는 지식과 정보를 통합해내어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창의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통한 아이디어 도출 기법을 배우는 ‘창의적 사고의 프레임워크’ 수업을 한 번씩 수강해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PART

II



나만의 학습전략 사례 공모전



커리어 우먼의 동그라미들

컴퓨터과학과 19학번 안선정

내 학습전략은 크게 3가지 방해되는 요소 없애기, 성취감 느끼기, 최면 걸기이다.

지루한 요소 없애기: 동그라미 5개 학습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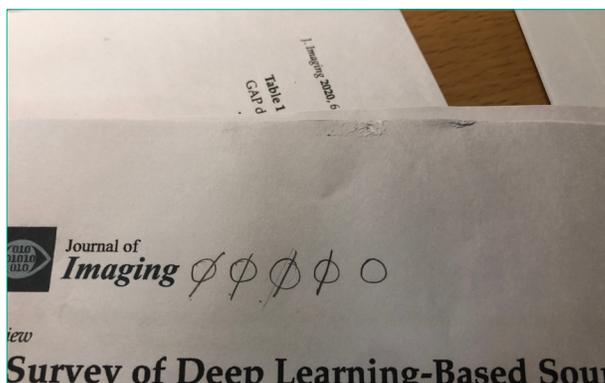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는 사람들은 다 해봤을 것이다. 악보 위에 동그라미 5개를 그리고, 한 번 연주할 때마다 동그라미에 선을 그으며 5번의 피아노 연주를 한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이런 방식을 따와 나만의 5회독 공부법을 만들게 되었다.

내 공부법의 이름은 ‘동그라미 5개’이다. 나는 비교적 공부를 하다 가도 쉽게 질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공부 중에도 금방 싫증이 나 다른 것들 (공부가 아닌 것들)을 하고 싶어 하게 되고, 계속 찾게 되었다.

어떻게 이 질리는 것을 해소할 수 있을까?

성취감을 자주 가질 수 있고, 공부에서 다른 걸로 아주 잠깐만 시야를 환기시킬 수 있는 것, 그리고 중간에 공부를 양심적으로 못 끊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생각하였다.

그렇게 생각해 낸 것이 ‘동그라미 5개’ 공부법이다. 내 공부법의 모습은 아래 사진과 같다.



[사진1] 동그라미 5개 학습 법

내 공부법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처음 그 과목을 공부하기 전에 동그라미 5개를 그린다. 이때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 자체가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압박감을 덜어준다. 그리고 나서 한 회독을 진행할 때마다 동그라미 하나에 선을 긋는다.

선을 긋는 장점

- 공부에서 선을 긋는 행위로 시야를 잠깐이라도 환기시킬 수 있고, 한 회독을 기준으로 쉬는 시간을 정할 수 있다.
- 시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회독할 때마다 성취감을 배로 느낄 수 있다.
- 회독하다가 그만두고 싶어도 선 하나 더 긋고 싶어서, 회독을 시작하게 되면 끝까지 한 회독은 끝내게 도와준다.

나만의 회독 방식

5회독을 끝내고 나서의 내 모습은 목차만 보고 사람들에게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모습이다. 즉 5회독을 위와 같은 목표를 두고 진행한다. 전체적으로 1~3회독은 논리적인 개연성을 강화해 주는 역할을 하고, 4~5회독은 형성된 논리적인 개연성을 가지고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1회독>

누구나 1회독이 가장 오래 걸린다. 그래서 제일 지루한 회독 차수가 1회독이고, 대부분 1회독을 하다가 다음으로 미룬다. 하지만 내 공부법은 1회독의 부담감을 줄여 줄 수 있다. 1회독은 다 이해하려고 하는 단계가 아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빨간펜으로 표시해두고 이해를 하지 못해도 넘어간다. 즉 1회독의 목표는 그냥 한번 읽어보며 전체적으로 뭘 말하고 싶은지 파악하는 것이다.

<2회독>

1회독이 끝난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목차마다 말하고 싶은 것, 즉 큰 틀은 잡혀 있게 된다. 그 상태로 1회독과 비슷하게 읽기를 진행한다. 추가적으로 2회독에서는 1회독에서 빨간색으로 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읽어본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1회독에서 빨간색으로 줄 친 부분들 중에서 30~40%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다. 만약 계속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파란색 볼펜으로 줄을 친다.

<3회독>

2회독이 끝난 상태에는 목차마다 논리적인 개연성이 꽤 생긴 상태이다. 3회독부터는 1, 2회독보다는 회독 속도가 빠르므로, 파란색 줄 친 부분을 검색해보고, 물어보고, 메모하며 회독을 진행한다. 그렇게 되면 3회독이 끝날 때 논리적인 개연성이 탄탄하게 잡힌 상태가 된다.

<4회독>

4회독은 간단하게 말해서 아나운서처럼 발표해보는 것이다. 아나운서들이 대본을 들고 말을 할 때 대본만 빨리 쳐다보지 않는다. 이와 같이 공부한 내용을 발표하듯이 가끔씩만 보면서 내 방식대로 입으로 직접 설명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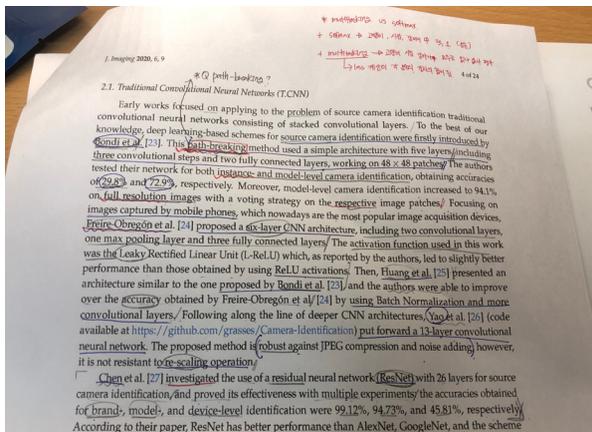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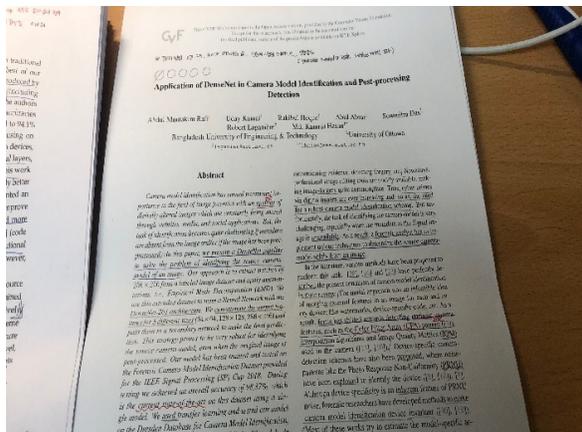
<5회독>

5회독은 최종적으로 A4용지에 공부한 목차를 쪽 적고, 목차만 보며 전체적인 스토리를 누구한테 설명하듯이 직접 말해본다. 이때 모르는 것을 아예 보지 않는 것보다, 최대한 안 보려고 노력해보되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면 그제야 공부한 자료를 슬쩍 보면서 진행 한다.

이렇게 되면 시험을 볼 때 문제가 특 나오면 바로 특 나올 수 있는 경지에 오르게 된다. 또한 기본적인 개념과 논리적 개연성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응용문제가 나와도 융통성 있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또, 나만의 공부법은 외우려고 하지 않고, 머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상식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한번 시험 보고 아예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들이 누적되어, 잊더라도 한 번 더 그 자료를 보면 바로 생각날 수 있다.

또한, 5회독을 하면 자료 위에 빼곡히 공부한 흔적을 볼 수 있다. 회독을 하면서 늘어가는 공부 흔적을 보며 성취감을 느끼며 공부할 수 있다. 내가 공부한 흔적을 볼 수 있다. 회독을 하면서 늘어가는 공부 흔적을 보며 성취감을 느끼며 공부할 수 있다. 내가 공부한 흔적의 예시는 아래 사진에서 볼 수 있다.



[사진 2] 왼쪽 사진은 1회독을 끝냈을 때의 공부 흔적, 오른쪽 사진은 5회독을 끝냈을 때의 공부 흔적이다.

위와 같은 학습법의 성과는 전공 과목을 꾸준히 높은 성적으로 유지해왔던 것과, 전반적인 IT 전공 지식을 요하는 시험 TOPCIT에서 3등급으로 상위 10%의 성적을 취득한 점에서 보인다. 다음의 사진은 전공 성적과 TOPCIT 시험의 결과 등급이다.

No	학수번호	교과목명	이수구분	학점	평점	등급
1	HAEAD005	디지털신호처리	1전선	3	13.50	A+
2	HAEAD012	데이터모델링과마이닝	1전선	3	13.50	A+
3	HAEAD008	소프트웨어공학	1전선	3	12.00	A
4	HAEAD017	인공지능	1전선	3	12.00	A
5	HAEZ0003	운영체제	1전선	3	12.00	A
6	HAIN0004	심층학습	일선	3	13.50	A+
5	HAEAS226	통계적분석	1전선	3	12.00	A
6	HAEZ0002	객체지향프로그래밍	1전선	3	13.50	A+
7	HAEED013	네트워크프로그래밍	1전선	3	13.50	A+
No	학수번호	교과목명	이수구분	학점	평점	등급
3	HAEAD001	이산수학	1전선	3	12.00	A
4	HAFLO002	C프로그래밍2	1전선	3	13.50	A+
5	HAFX0005	선형대수학	1전선	3	13.50	A+
6	HAFX0006	자료구조	1전선	3	13.50	A+
6	HAEAS212	정수론	1전선	3	12.00	A
7	HAFLO012	C프로그래밍1	1전선	3	13.50	A+
6	HAEAS225	파이썬프로그래밍	1전선	3	13.50	A+
7	HAUS0008	미적분학	1전선	3	12.00	A

[사진 3] 샘플 포털 시스템에서 전공 성적만 따와 이은 사진이다.



[사진 4] TOPCIT에서 발급받은 성적 인증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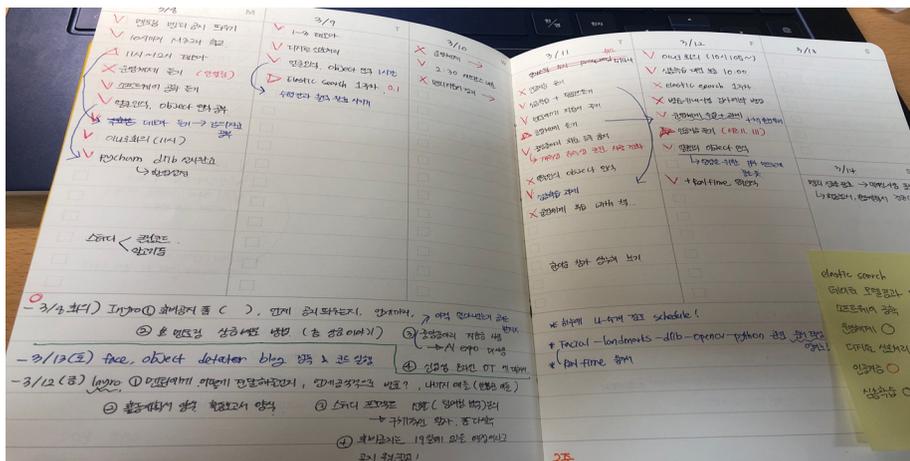
최면 절기(공부가 아닌 업무로 보기): “나는 유능한 커리어 우먼이다...”

이 학습법은 공부는 나중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기간 내에 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나의 시간관리, 해야 할 일 관리, 학습의 결과물 창출하기 등 다방면에서 효과가 나타난다.

내가 누구나 인정하는 유능한 커리어 우먼이라고 생각해 보면, 모든 일을 제시한 안에 똑딱 해결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위와 같이 생각한 커리어 우먼의 모습을 나 자신이라고 최면을 건다. 내가 커리어 우먼으로서 한 일은 다음과 같다.

스케줄 관리하기

매일 밤 내일 해야 할 업무(공부할) 내역을 정리한다.



[사진 5]

공부한 내용 대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활동은 튜터링, 스터디 상생플러스, k-mooc 활동들을 활용하면 좋다.)

공부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업무로 접근한다. 매주 어떤 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공부를 했는지 보여주거나 설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업무로 접근하면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다. 더욱 강제적으로 진행하고 싶다면 튜터링, 상생플러스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여 팀 단위로 이어 나가면 좋다. 나의 경우에는 튜터링과 개인적으로 꾸린 팀 단위의 프로젝트를 자주 진행하였다.

튜터링을 하면서 만들어낸 결과물 모습은 아래와 같다.

README.md	Update README.md	5 months ago
그래프.md	Create 그래프.md	5 months ago
스택.md	Create 스택.md	6 months ago
알고리즘 성능 분석.md	알고리즘 성능 분석	7 months ago
연결리스트.md	Update 연결리스트.md	7 months ago
우선순위 큐 & 힙.md	Create 우선순위 큐 & 힙.md	6 months ago
재귀.md	Create 재귀.md	7 months ago
정렬.md	Create 정렬.md	5 months ago
주상자료형 + 순차 리스트.md	Update 주상자료형 + 순차 리스트.md	7 months ago
큐&덱.md	Update and rename 큐&덱 to 큐&덱.md	6 months ago
트리.md	Update 트리.md	6 months ago

우선 순위 큐(힙의 삭제)

```

while(childIdx = GetHPriChildDX(ph, parentIdx))
// 자식노드끼리만 비교

if(ph->comp(lastElem, ph->heapArr[childIdx]) < 0)
// 우선순위 높은 자식노드 하나와 부모 노드끼리 비교
    
```

[사진 6]

해당 자료는 github: https://github.com/sunjungAn/DataStructure_mentoring 에서 자세하게 볼 수 있다. 튜터링 활동뿐만 아니라 공부한 내용을 보고서처럼 매주 정리, 기록하고 결과물을 내는 활동은 아래 링크에서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Github: <https://github.com/sunjungAn?tab=repositories>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만들어낸 결과물 모습은 다음과 같다.

기술 다이어그램

데이터셋 만들기: VideoCapture로 프레임마다 사진 추출 → Medisapipe API → Pose Landmarks 추출 → 각 프레임의 관절 좌표 추출 → CSV 형태로 저장 (약 40000개의 데이터 세트)

학습 모델 만들기: 데이터 세트 CSV 불러오기 → SVM 모델 설계 → 최적 하이퍼 파라미터 탐색 → 탐색된 하이퍼 파라미터로 훈련 → 모델 pkl 저장

실행(GUI): START → VideoCapture로 프레임마다 사진 추출 → 모델 불러오기 → Pose Landmarks 추출 → 모델 prediction → 자러 비율 출력 / 기록용 출력

Consolidated Version	Update Consolidated Version	2 months ago
Docs	Update Docs	2 months ago
GUI(Interface)	Add files via upload	3 months ago
Ninja_Turtle	Update ninja_turtle.py	2 months ago
TurtleData	Update Docs	2 months ago
Turtle_Model	Update README.md	2 months ago
.gitignore	first commit	3 months ago
README.md	Update README.md	last month

이 방식은 스스로 공부를 미루지 않고 꼭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도와줄뿐더러, 결과물을 실제로 제작하게 되어 성취감도 얻을 수 있다.

위와 같은 방식의 성과로는 “SW.AI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점에서 나타난다. 그뿐만 아니라, Github: <https://github.com/sunjungAn?tab=repositories> 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내용과, 공모전을 출품한 이력들을 볼 수 있다.

AISW 공모전		
구분	팀명	팀원
대상	너희들도 moDel 어때?	김*빈, 김*서, 양*안, 정*혜
최우수	닌자거북이	배*기, 안*정, 임*지, 최*민
우수	사생활 침해 멈춰!	김*우, 김*민, 박*은, 최*희

전체적으로 나의 학습법은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기’에서 내가 흥미를 갖고, 즐거워하는 방식을 첨가하는 것이다. 또한, 열심히 산출해낸 결과물에 대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학습을 하는 데서도 추진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수상

수학교육과 1학년에게 부치는 편지

수학교육과 21학번 박소은

인사말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육과 21학번 박소은입니다. 이 글에서 수학교육과의 1학년 1학기 전공과목인 [집합론교육] 과목에서 중간/기말고사 만점, 그리고 [수학사교육] 과목에서 지필고사 최고점 및 레포트 만점을 받은 공부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집합론교육 초벌필기

1) 수업시간 활용하기

집합론교육을 강의하시는 이상범 교수님의 강의스타일은 100% 판서강의입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최대한 많은 것을 받아 적은 후, 개인 공부시간에 필기를 압축하며 개념을 구조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초벌필기에 들어가야 할 항목은 정의, 정리(+증명), 보조정리(+증명), 그림입니다. ‘3. 집합론교육 지필고사 준비’항목에서 자세히 후술하겠지만 시험문제는 ‘~임을 증명하시오’ 형식으로 출제됩니다. 만약 증명을 단번에 이해하기 힘들더라도 우선 받아 적어 두세요.

2) 녹화강의 100% 활용하기

COVID-19로 인하여 융합수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의 강의영상이 e-Campus에 업로드 되는데요, 수많은 정의가 나오고 더욱 많은 정리가 쏟아지는 수업시간에 필기까지 해내기 어렵다면 녹화영상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재생 속도를 조절하여 원하는 빠르기로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잠시 일시정지한 채로 필기를 할 수도 있으며, 특히 어려운 부분은 몇 번이고 되감아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강의의 흐름이 중요한 집합론교육 과목에서 녹화강의 제공은 큰 장점입니다.

3) 개인 공부는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받아 적은 초벌필기와 교과서(Introduction to set theory 3/E)를 참고하여 맥락을 더욱 견고히 하고 비슷한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정리해 둡니다. 영어로 된 텍스트에 대한 두려움만 없다면 교과서는 최고의 교재입니다. 필기 정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집합론교육 필기정리

초벌필기(필수)와 녹화강의(선택), 교과서(선택), 위키피디아(선택) 등을 적극 활용하여 배운 내용을 구조화하고, 어떤 개념을 바탕으로 어떤 내용을 전개하는지 그 흐름을 견고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기초 다지기

집합론이라는 생소한 수학 영역을 처음 접한 신입생은 기본적인 기호 및 약어 사용법을 잘 몰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수학 기호는 그 뜻을 명확히 알아 둡시다. 또한, 이전 단계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이후 학습에 큰 지장이 생기는 교과목의 특성상, 정의 하나를 놓치게 되면 그 위에 쌓아올리는 수많은 정리들의 증명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새로운 개념의 정확한 정의를 받아들인 후 정리를 증명해 봅시다.

2) 응용하기

정의라는 무기를 바탕으로, 참인 명제, 즉 정리를 증명하는 과정을 연습하게 됩니다. 수업시간에 정리의 증명을 직접 보여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어떤 증명은 “여러분들이 check 해보세요.”라고 하시는데 여기에서 시험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업시간에 배운 지식을 총동원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교수님 사무실로 찾아가서 질문을 드려도 좋고, 선배의 필기를 참고하여도 좋습니다. 후배님들을 위해 저의 필기를 첨부합니다. 첨부파일에서 ‘집합론중간-박소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그림은 복잡하고 헷갈리는 개념을 한 눈에 드러내 줍니다. 배운 내용을 압축하여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머릿속에 오래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 3]을 보시면, 집합의 상과 역상에 관한 정리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내포하는 숨은 뜻을 진한 색 화살표로 나타냄으로써 수식을 해석할 필요가 없어지고 정리를 직관적,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그림 4]를 통해 개념지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개념들을 정신없이 배우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거지?’라는 자연스러운 의문이 생깁니다. 무엇을 바탕으로 이 개념이 나왔는지 그 근거와 맥락을 찾아 정리하는 작업을 통해 집합론이 형성되는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념지도를 통해 지필고사에서 이 문제가 어느 내용을 묻고 있는 것인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필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볼 필요 없이 원하는 정리에 곧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21.07.08 보강 1-

$Y^X = \{f | f: X \rightarrow Y\}$: Y to the power of X

$\{0, 1\}^A = \{f | f: A \rightarrow \{0, 1\}\} \sim \mathcal{P}(A)$

$\text{card}(X) = x, \text{card}(Y) = y$ 일 때
 $\text{card}(Y^X) = y^x = \text{card}(Y)^{\text{card}(X)}$ 전개의 수가 달라도 결과는 같다.
 y to the power of x

$\text{card}(\{0, 1\}^A) = 2^{\text{card}(A)} = \text{card}(\mathcal{P}(A))$

이러해서 이 둘이 power set 이거지.

같은 수에 유한한 (지수)은 적용한다.

Apply to $A = \mathbb{N}$, $2^{\aleph_0} = \text{card } \mathcal{P}(\mathbb{N}) = \mathcal{C}$
증명 필요

$\text{card } A = a, \text{card } B = b$ 라 할 때,
 $\text{card}(A \times B) = ab = \text{card } A \times \text{card } B$ 전개의 수가 달라도 결과는 같다.

$\text{card}(\emptyset \times A) = 0 = 0 \cdot a = \text{card } \emptyset \times \text{card } A$
 $\text{card}(\{1\} \times A) = 1 \cdot a = \text{card } \{1\} \times \text{card } A$ $\{1\} \times A \sim A$

[그림 1] 초벌필기 예시

Def Cartesian Product (카티션곱) : The set of all ordered pairs
 $X \times Y = \{(x, y) | x \in X \text{ and } y \in Y\}$: cartesian product of X and Y

성질 $X \times Y \neq Y \times X$: not commutative in general **예시** $A = \{a, b\}, B = \{1, 2, 3\}$
 $X \times \emptyset = \emptyset \times X = \emptyset$: 공집합과의 곱집합은 공집합 $A \times B = \{(a, 1), (a, 2), (a, 3), (b, 1), (b, 2), (b, 3)\}$

Def Power-set (역집합)
 $\mathcal{P}(X) = \{Y | Y \subseteq X\}$: The set of all subsets of X

예시 $A = \{a, b\}$
 $\mathcal{P}(A) = \{\emptyset, \{a\}, \{b\}, \{a, b\}\}$

Def $|X|$: 집합 X 의 원소의 개수

성질 $|X \times Y| = |X| \times |Y|$

$|X| = a < \infty$ 일 때
 $|X \times X| = |X| \times |X| = a^2$
 $|\mathcal{P}(X)| = 2^a$

[그림 2] 필기정리 예시

Thm $f^{-1}(f(A)) \supseteq A$ **범위** $f(f^{-1}(B)) \subseteq B$

증명 A 의 모든 원과 $f^{-1}(f(A))$ 의 원집을 보자. $f(f^{-1}(B))$ 의 모든 원과 B 의 원집을 보자.
 $\forall a \in A, a \in A \Rightarrow f(a) \in Y$ $\forall b \in f^{-1}(B), b \in f^{-1}(B)$
 image의 원에 의해, $f(a) \in f(A)$ image의 원에 의해, $b = f(c)$ s.t. $c \in f^{-1}(B)$
 inverse image의 원에 의해, $a \in f^{-1}(f(A))$ inverse image의 원에 의해, $f(c) \in B \Rightarrow b \in B$
 $\therefore a \in A \Rightarrow a \in f^{-1}(f(A))$ $\therefore b \in f^{-1}(B) \Rightarrow b \in B$
 $\therefore A \subseteq f^{-1}(f(A)) \quad \square$ $\therefore f(f^{-1}(B)) \subseteq B \quad \square$

Thm $f^{-1} \circ f^{-1} \Rightarrow f^{-1}(f(A)) = A$ f onto $\Rightarrow f(f^{-1}(B)) = B$

증명 A 의 모든 원과 $f^{-1}(f(A))$ 의 원집을 보자. $f(f^{-1}(B))$ 의 모든 원과 B 의 원집을 보자.
 $f^{-1}(f(A))$ 의 모든 원과 A 의 원집만을 보자. B 의 모든 원과 $f^{-1}(B)$ 의 원집만을 보자.
 $\forall a \in A, a \in f^{-1}(f(A)) \Rightarrow f(a) \in f(A)$ $\forall b \in B, b \in \text{Im } f = Y \text{ " } f \text{ onto"}$
 임의 A 의 원 a 에 대해, $a \in A$ 이고 $\exists a \in X$ s.t. $f(a) = b \in B$
 $f(a) = f(a) \Rightarrow a = a, f^{-1} \circ f^{-1}$ $a \in f^{-1}(B)$
 $a \in A$ $f(a) \in f(f^{-1}(B))$
 $\therefore f^{-1}(f(A)) \subseteq A \quad \square$ $\therefore b \in f(f^{-1}(B))$
 $\therefore B \subseteq f(f^{-1}(B)) \quad \square$

[그림 3] 필기정리 예시

목차 (0 ~ ②)

power set $\rightarrow \mathcal{P}(X)$ $\xrightarrow{\text{subset of X}} \mathcal{P}(X) - \{\emptyset\}$ $\xrightarrow{\text{subset of X}} \mathcal{P}$ of X

$X \times X$ $\xrightarrow{\text{power set}} \mathcal{P}(X \times X)$ $\xrightarrow{\text{element}} \mathbb{R}$ $m \times X$ $\xrightarrow{\text{satisfying}} \mathbb{E} m \times X$

X $\xrightarrow{\text{cartesian product}} X \times Y$ $\xrightarrow{\text{power set}} \mathcal{P}(X \times Y)$ $\xrightarrow{\text{element}} \mathbb{R}$ $\xrightarrow{\text{from X to Y}} f: X \rightarrow X$ $\xrightarrow{\text{satisfying}} f: X \rightarrow Y$

[그림 4] 개념지도

3. 집합론교육 지필고사 준비

1) 기출문제 파악

어떤 시험을 보든 시험준비의 기본은 기출문제 파악입니다. 샘플-통합정보-학생기본-수업정보-고사문제지조회 항목으로 접속한 후, 학년도와 학기를 설정하여 지난 시험문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본 과목의 경우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강의시간에 짚어주신 부분에서 시험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강의를 잘 듣고 교수님께서 check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완벽하게 증명해 두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2) 시험에 임하는 자세

시험은 오픈북으로 진행되며, 증명하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시험 시작 전까지 모든 정리에 대한 증명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시험 시간은 꽤나 넉넉하게 주시기 때문에 평소에 공부를 했다면 주어진 시간 안에 여유롭게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개념지도와 필기정리를 펴 두고 시험문제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빠르게 찾아 증명을 옮겨 쓰면 됩니다. 21년도 중간고사에서는 강의 시간에 다른 정리만 출제되었으며, 기말고사에서는 기존에 다른 정리 두세 개를 섞은 새로운 정리를 증명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중간고사 30점 만점에 30점, 기말고사 70점 만점에 70점을 얻었습니다.

4. 수확사교육 필기 및 레포트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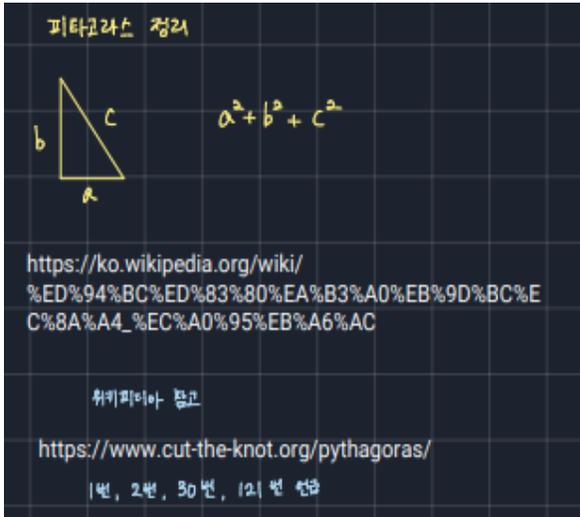
다음은 김화경 교수님의 [수확사교육]입니다. COVID-19로 인하여 20학년도에는 중간/기말 모두 레포트로 대체하였고 21학년도에는 기말고사+중간레포트+기말레포트로 평가하였습니다.

1) 대면수업? 비대면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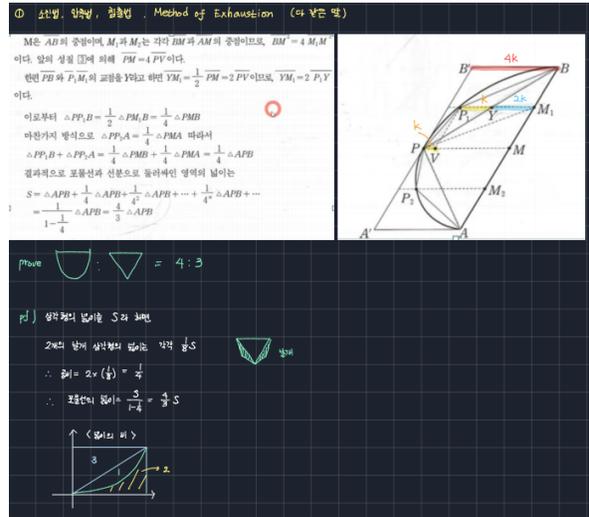
강의실에서 대면수업을 진행하시는 동시에 ZOOM을 활용한 실시간 비대면 수업을 제공합니다. 교수님께서 카메라와 화면 공유를 적절히 사용하여 내용을 띄워주시기 때문에 꼭 대면수업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대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도 마이크와 카메라를 사용하여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배려해 주시기 때문에 각자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수업에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2) 필기하는 법

수업 시간에 하신 모든 말씀을 적습니다. 학생발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모두 적습니다. 시험문제는 교수님 말씀과 학생 발표 중에서 출제됩니다. 기본적인 필기 방식은 위에서 설명한 집합론교육의 필기 방식과 동일하나, 초벌필기 이후 필기를 정리할 때 수업 시간에 제시되는 참고자료를 찾아 보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 5]와 같이 수업 시간에 언급하신 사이트를 링크로 첨부하거나, 비대면 수업의 경우 줌 화면을 캡처하여 [그림 6]과 같이 그 위에 필기할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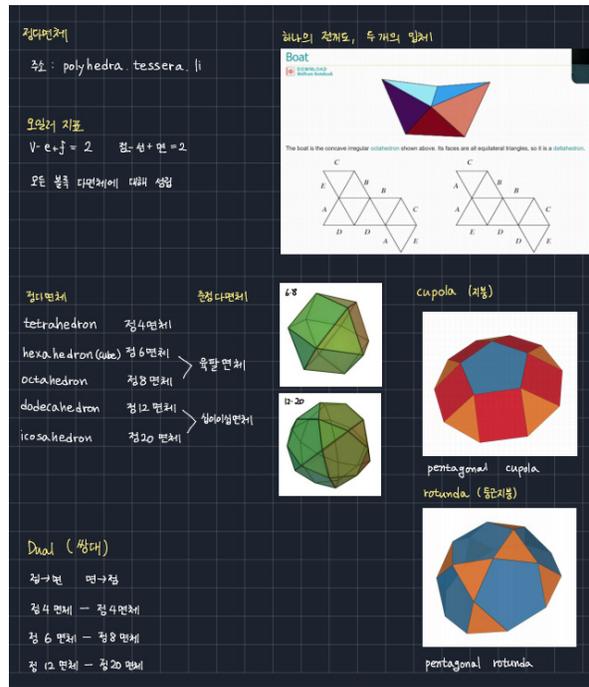
[그림 5] 링크 삽입



[그림 6] 화면 캡처하여 이미지 삽입

3) 공부하는 법

수학사교육은 수업 시간에 큰 줄기를 제시해 줄 뿐이고, 공부하는 직접 찾아가면서 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그날 배운 내용을 구글에 검색하며 관련 지식을 훑어보고, 연관이 깊은 내용이나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던 내용은 요약하여 필기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림 7]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림들이 많이 삽입되어 있는데, 가장 위에 있는 배 모양 도형을 제외하고 모두 별도로 검색하며 찾은 내용을 정리하여 추가한 것입니다.



[그림 7] 정다면체를 배운 후 준정다면체 검색

4) 레포트 제출

레포트는 크게 중간/기말레포트, 파스칼의 삼각형 레포트, 포물선 레포트 3가지로 구분됩니다. 중간/기말레포트는 필기한 것을 모아서 제출하기만 하면 되니, 평소에 성실하게 필기를 정리해 왔다면 별다른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파스칼의 삼각형 레포트는 정리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며, 포물선 레포트는 포물선의 넓이를 포함하여 포물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요구합니다. 구글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중 ‘수학사전범위-박소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베껴서 제출하면 표절이니, 참고만 하고 본인의 생각을 녹여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에 강의 시간에 소소한 과제를 패들릿에 업로드하는 과제를 내 주시는데, 강의를 들었다면 금방 해결할 수 있습니다.

5. 수확사교육 지필고사 준비

오픈북으로 진행되며 기출문제와 중복되는 문제가 절반, 새로이 출제한 문제가 절반입니다. 앞서 설명한 방식으로 3개년 기출문제를 확보한 후 풀어보시길 바랍니다(‘수확사전범위-박소은’첨부파일에도 17년도부터 21학년도까지의 기출문제 풀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 중 처음 보는 내용이 있다면 굳이 힘들여 풀 필요는 없습니다. 당해년도에 배우지 않은 주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시험문제의 난이도는 두 종류입니다. C와 B를 가르기 위한 확인문제와, A와 B를 가르기 위한 응용문제가 있습니다. 확인문제의 경우 강의 중에 가르쳐 주신 내용이 그대로 출제되며, 응용문제의 경우 위키피디아 등을 찾아보며 심도 있게 공부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픈북이므로 시험 중에 검색을 하면서 풀 수도 있겠지만 시험 시간이 매우 촉박하게 주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미리 공부하여 정리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레포트 점수 만점, 기말고사 100점 만점에 95점(응시자 중 최고점)을 얻었습니다.

6. 맺음말

많이 부족하지만 첨부파일로 저의 필기자료를 공유합니다. 대학교에 진학하여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공부 방법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 저의 작은 흔적을 남깁니다. 수학교육과 후배 여러분의 학업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줄입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링크 및 QR코드 : <https://url.kr/pl3rzd>



우수상

야, 너두 할 수 있어! 읽고 쓰고 '기본'에 충실하자!

역사콘텐츠전공 19학번 이다빈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저는 공부에 흥미가 있는 것도,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어찌면 공부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방황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고 싶었던 것과 좋아하는 것은 분명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에서 만큼은 학원에 의존하면서 수동적으로 공부했던 것과 달리 내가 진심으로 배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지식을 쌓아가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기대심을 가지고 상명대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새로운 환경에 놓인 상황에서 다소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더욱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야겠다는 동기 부여가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무언가 거창하고 특별한 학습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나에게 맞는 학습법을 찾는 데까지 오랜 시간 돌아왔고, 이 학습법을 활용한 덕분에 지금까지 수차석 장학금을 받아오면서 4점대 후반이라는 고학점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직접 부딪혀 보면서 발견해 낸 나만의 자기주도적인 학습 전략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1. 기본에 충실한 나만의 자기주도 학습 전략

1) 한 학기의 시작, 모든 것은 계획에서부터

대학교와 중고등학교와의 차이점은 ‘한 학기의 스케줄을 누가 관리하고 계획하는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대학교는 나의 의지, 기호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짜여진 시간표에 맞추어 단순히 교과 지식을 주입하는 방식이 아닌 듣고 싶은 강의를 직접 선택하여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에 맞추어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표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대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자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개강하기 전, 새 학기를 준비하기 위해 대학생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은 바로 수강 신청입니다. 수강 신청을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에 따라 학점, 생활 패턴 등이 달라질 수 있기에 학습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연속적으로 강의

를 듣는 것이나 아침 일찍 진행되는 강의를 듣는 것에 피로감을 느끼고 강의 내용에 집중을 잘 할 수 없다면 이를 피해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책 펴고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것만 공부가 아니라 한 학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간표를 만들고 계획하는 것, 수강신청을 하는 기준 또한 개인적인 학습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계획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우들 사이에서 일명 ‘꿀강의’라고 불리는 듣기 편하고 쉬운 강의들보다는 사전에 공지되는 강의 계획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 후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는 강의를 수강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학습에 임하는 태도도 꽤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듣게 되는 수업보다 본인이 찾아 듣는 수업에서 더욱 높은 집중력을 보이고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한 열심히 하는 만큼 그것이 곧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학업적 성취감으로도 이어지는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특히, 수강 전 수업에 대한 사전 분석은 필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본 강의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강의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강의형 수업, 토론형 수업, 과제나 발표, 조별과제의 유무 등 각 강의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수업 진행 혹은 시험 방식이 나와 맞는가 역시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철저한 계획에 의해 완성된 시간표의 중요성은 시험 기간에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학습 전략의 또 다른 방법은 적절한 시간 분배라고 생각합니다. 공강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오직 공강을 만들기 위해 잘못된 시간표를 짜서 특정한 요일에 여러 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리한 일정 탓에 수업을 듣기도 전에 지치거나 시험을 준비하면서 특히나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 학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철저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시간표를 짜는 것은 중요할 수밖에 없으며, 모두에게 해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학습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2) 꾸준한 복습을 통해 이해도 높이기

대학에 처음 입학한 1학년 때를 떠올려 보면, 늘 시험을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처음인 대학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등 학업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조언을 구할 이도 없어 그저 막막하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와 다른 것이 너무나도 많았고, 특히 문제집 같은 기출 자료를 통해 학습한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익힌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 불안감이 더욱 컸던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다소 뻘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꾸준한 복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매체에서 ‘교과서만 보고 공부했어요’, ‘예습, 복습을 했어요’라는 말에 공감하지 못하였는데,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야 그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의에서 다루는 교재 외에 참고할 만한 자료나 따로 풀어볼 수 있는 문제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원 같은 사교육에는 더욱이 의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집중해 경청해야 하고, 그 내용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한 것이 바로 강의 내용에 대한 철저한 복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복습에 있어서는 작심삼일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미루어 두

어도 안됩니다. 처음 수강하는 내용을 듣다 보면 당연히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어려운 것일수록 복습을 통해 반복적인 학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단, 모든 내용을 암기하려고 하기보다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습한 부분에 있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초반부터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후반부로 갈수록 집중력과 학습에 대한 의지가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가볍게 전체적인 흐름을 훑고, 두 번째, 세 번째 반복할 때에는 교안과 교재를 참고해 핵심 내용을 손글씨 혹은 문서 타이핑으로 정리하면서 잘 모르거나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여러 번 복습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하여 인용문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서술문 내로 시, 다 / 서술문은 "오냐", 명령문은 "오냐 / 정오냐" "자"만 사용한다. 앞뒤는 명사임으로 바위 "다"만 사용한다. 서술법에 귀속한다. 또한 앞뒤는 "오냐 / 다" 두 가지도 사용 가능하며, 어느 정도 목적성을 가지면서, 서술법에 귀속한다. 흔하

· 단락을 통해 명사형명사라는 특징으로 명사형, 동명형, 목적형이 구분된다. 서술문은 흔하 명사를 드러내지만, 명사형 또한 조동사를 기본으로 하는 명사형, 동명형과는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부동명, 목적, 관형, 동사구, 조동사는 부동 명사형 명사, 동명형, 동명형과 다르다. 따라서 학습자는 서술법에 귀속되는 서술문의 하위 명사형이다.

구분	서술문	명사형	동명형	목적형	부동명	관형형	동사구	조동사
1	가장 중요한 명사형 명사형	명사형 명사형						
2	명사형 명사형	명사형 명사형	명사형 명사형	명사형 명사형	명사형 명사형	명사형 명사형	명사형 명사형	명사형 명사형
3	명사형 명사형	명사형 명사형	명사형 명사형	명사형 명사형	명사형 명사형	명사형 명사형	명사형 명사형	명사형 명사형
4	명사형 명사형	명사형 명사형	명사형 명사형	명사형 명사형	명사형 명사형	명사형 명사형	명사형 명사형	명사형 명사형

6. 윤동주 (서, 숨겨져서) 주제: 반성, 반고독

- 아름다운 시를 썼던 장면/상황의 삶과 시 = 삶과 시, 감동
- 아름다운 시를 썼던 장면/상황의 삶과 시 = 삶과 시, 감동
- 아름다운 시를 썼던 장면/상황의 삶과 시 = 삶과 시, 감동

8. 서정주 (기화상, 빛깔의 땅, 연인들, 동행, 신성, 향연의인사)

- 향연의 땅을 향하여 - 친밀, 두께
- 향연의 땅을 향하여 - 친밀, 두께
- 향연의 땅을 향하여 - 친밀, 두께

7. 박목월 (봄나, 나그네, 겨울, 향수, 향수)

- 향수, 향수, 향수
- 향수, 향수, 향수
- 향수, 향수, 향수

<강의별 요약 및 복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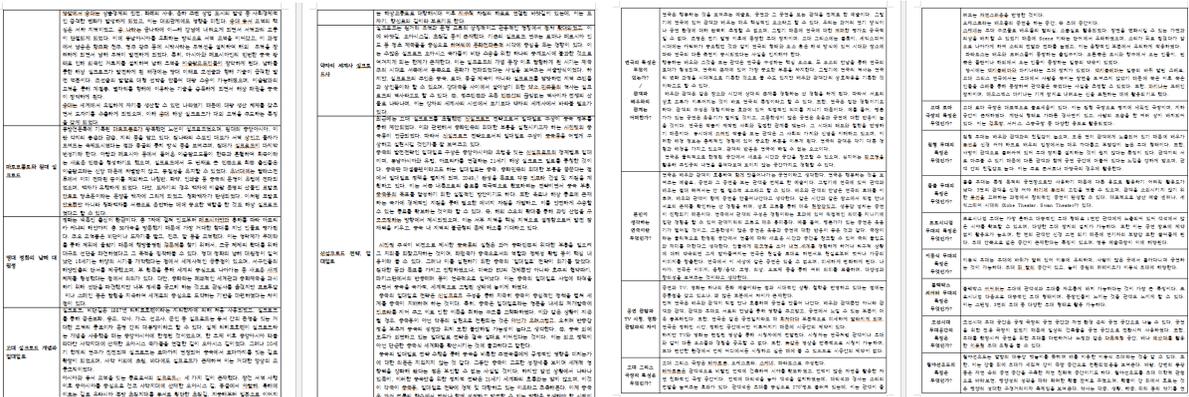
체계적인 반복 학습이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표에 맞게 그날 그날 배운 내용과 필기를 상기시키며 대략적으로 살펴보기만 해도 강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복습을 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와 이를 습관으로 길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시험만을 위해 반짝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이를 꾸준히 지속하는 공부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는 학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며, 결국 모든 대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험 기간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 자연스럽게 만족할만한 성적을 얻고 할가분한 마음으로 해당 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3) 나만의 언어로 바꾸어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라

복습을 통해 교수님께서 수업 내용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한 것에서 나아가, 그 내용을 나만의 언어로 재구성하여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각 목차에 맞는 키워드 및 주제와 관련하여 문장으로 풀어보는 방식입니다. 즉, 내가 아닌 타인에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짧게 요약한 것들을 다시 완전한 긴 문장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서술형, 논술형 시험을 보듯이 예상 문제를 뽑아 그 질문에 답하는, 미리 답안지를 작성해보는 연습이기

도 합니다.

개념을 알고 있는가와 이를 문장으로, 자신만의 언어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공부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글로 적어보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진 지식을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100% 이해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학습의 기초는 글쓰기와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는데, 이러한 글쓰기 학습 과정을 통해 논리력과 표현력을 기름으로써 교수님이 전달한 강의 내용을 온전히 자신만의 지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듯 스스로 지식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이야말로 진정 자기주도 학습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혼자 힘으로 정리하고 구조화한 것이기 때문에 '나만의 비법 노트'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의별 글쓰기 학습 노트〉

다만, 문장으로 만든다고 해서 한 두 문장만 쓴다면 제대로 된 공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핵심어에 자신의 생각, 근거 등을 함께 덧붙여 논리를 갖춘 문장들을 엮어 하나의 문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는 인과관계가 명확한 문장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학습 주제에 대해 '왜?'라는 질문을 던져 심화적인 탐구와 분석을 가능하게 하기도 합니다. 특히, 쉬운 암기법이자 서술형 시험을 준비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학습법이며, 그 외에도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최종적으로 개념을 다지거나 재확인하여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는 데에 유용합니다. 논리적인 글쓰기 훈련과도 같기 때문에 서평 과제에서 유일한 만점을 받아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많아진 감상문, 에세이, 서평이나 레포트와 같은 과제물 수행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활용 가능한 학습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첨부파일 1개 (78KB) 모두 저장

서평 이디먼(2025).hwp 78KB

안녕하세요. 김현주입니다.

레포트 채점 내용 보내드립니다.
뒷 부분에 피드백도 썼으니 확인 바랍니다.

레포트 유일한 만점자임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험과 발표, 토론도 훌륭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조용하면서도 집중하게 열심히 수업에 임해주신 점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참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주 드림.

〈서평 과제 피드백 내용〉

2. 학습법 활용 과정 및 성과

우선적으로 시간표를 짜고 학습 계획을 세울 때 공강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하루에 두 과목 이상 수강하는 것은 최대한 피하고자 했습니다. 더불어, 3학년 1학기까지 위에서 소개한 반복해서 읽고 직접 써보는 학습법을 활용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인드맵을 활용하여 공부도 해보았지만, 그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마인드맵 자체를 그리는 데에 집중하게 되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고, 눈에 띄는 결과를 보이지도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학습법과는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고, 그냥 기본에 충실하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에 예습은 하지 못하더라도 강의 내용을 복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안 하던 일을 하려니 괜히 더 하기 싫은 마음이 들었지만, 이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주간 플래너에 투두 리스트를 작성하여 당일에 할 일을 미루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첫 시험을 보고 난 이후의 허탈한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다고 자신했으나, 시험 당일 제한된 시간 내에 주어진 B4 용지 크기의 답안지를 채워나가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서술형에 취약하다는 점과 복습하고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글쓰기 학습법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단순 요약은 전체적인 내용 개괄에는 도움이 될지라도 금방 잊어버려 기억에 오래 남지 못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달아보는 과정을 통해 확실히 이해하지 못한 내용들을 발견함과 동시에 개념을 반복 정리하면서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꾸준함과 성실함이 요구되는 학습법입니다. 시험 직전에 하는 벼락치기가 아니라 학기 중에 그리고 강의를 마친 당일에 힘들다면 적어도 그 주에는 반드시 복습을 해야 여유롭게 시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시험을 코앞에 두고 닥쳐서 하는 벼락치기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적이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건 잠깐 운이 좋았던 것이지 자신이 공부해서 나온 실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획하고, 읽고 쓰는 학습법은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를 활용하면서 5학기 동안 4.41이라는 학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2021학년도 1학기에는 무려 7전공 21학점을 수강하면서 4.5라는 우수한 성적과 성취감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꾸준히 수석, 차석 등의 성적 장학금을 받아오기도 했지만 한국장학재단에서 추진하는 국가 우수(인문 100년) 장학금의 전공 확립 유형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2년간 매 학기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것 하나 없지만 ‘꾸준함’과 ‘꼼꼼함’만으로 이루어 낸 성과라고 믿고 싶습니다.

전래성적내역 ※ 주의 : P/F 교과목은 신청학점 및 평점평균 계산시 제외됩니다.

수강신청학점계	99
(평점평균반영)신청학점	93
취득학점	99
평점계	410.50
평점평균	4.41
백분율	98.20

학기별성적 [5]

No	학년도	학기	신청학점	취득학점	평점계	평점평균	백분율
1	2021	1학기	21	21	94.50	4.50	100.00
2	2020	2학기	18	19	81.00	4.50	100.00
3	2020	1학기	20	22	90.00	4.50	100.00
4	2019	2학기	16	18	67.50	4.21	96.10
5	2019	1학기	18	19	77.50	4.30	97.00

장학수혜목록 [7] 수혜학년도/학기* : 선택

No	학년도	학기	장학구분	대가구분	장학금코드	장학금명	장학금명(영문)	차수	수혜금액	학생비고
1	2020	2학기	교내	학비감면	10126	학과 전공수석	Header(in one's dept.) Scholarship	1	3,326,000	
2	2020	2학기	교외	대가	20603	학신장학금		24	300,000	
3	2020	1학기	교내	학비감면	10127	학과 전공차석	Secondary Header(in one's dept.) Scholarship	1	2,328,200	
4	2020	1학기	교내	대가	10262	교내프로그래밍우수자(대가성)		3	150,000	
5	2020	1학기	교내	대가	10737	특별		2	78,820	
6	2019	2학기	교내	학비감면	10126	학과 전공수석	Header(in one's dept.) Scholarship	1	3,326,000	
7	2019	1학기	교외	학비감면	20340	국가장학금 II 유형(입학금감축대체)		1	178,000	

< 장학금 선정결과 >

2021년 1학기 1차 인문100년장학금 상명대학교(본교) 학부	합격(지급준비)
---	----------

<평점 평균 및 장학 수혜 결과>

제가 여러 실패를 겪었던 것처럼 개개인에게 맞는 학습법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법이 무조건 맞다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아직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막막한 학우들에게 혹은 학습법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학우들에게 제가 터득하여 활용해 본 학습법을 공유하여 ‘이렇게 공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더불어,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성적 향상, 자격증 취득 등 어떠한 방향에서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려상

트리구조 활용하기

역사콘텐츠전공 20학번 **이예은**

2021년도 1학기에 가장 덕을 본 학습전략은 ‘트리구조’이다. 이 방식을 이용한 ‘일본과 중세사’, ‘역사학의 이해’, ‘현대생활과 디자인’ 강의에서 모두 A나 A+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기존에는 수업 시간의 강의 내용을 한글로 2번씩 정리하고 꾸준히 다시 읽어보면서 시험을 대비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단순한 방식으로 만족스러운 점수를 얻기는 힘들었다. 그래서 이 고민을 아버지한테 털어놓았고 그 답으로 트리구조 방식을 얻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변화된 나의 학습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방식을 통해서 단순히 시험점수의 이득뿐만 아니라 글을 쓰는 실력도 많이 늘릴 수 있었다.

1) 월간 계획표 작성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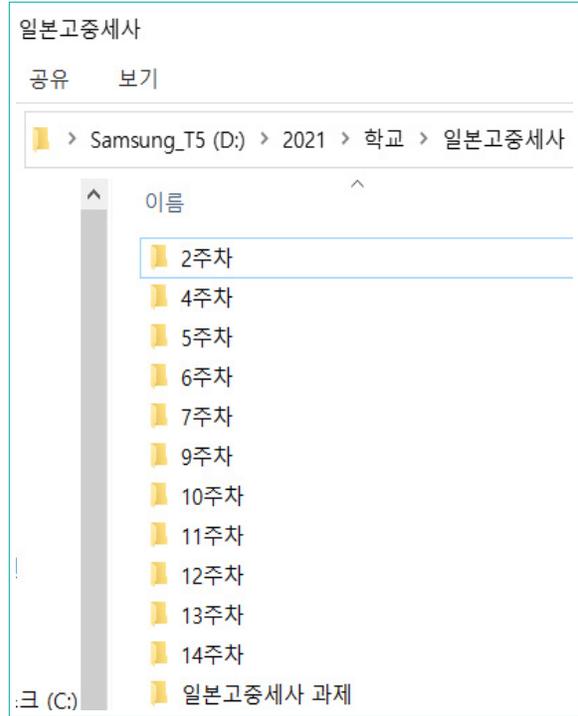
학기 중에는 아르바이트나, 과제, 학생회 활동 등 공부를 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일정들이 있다. 작년에 겪었던 문제점 중 하나가 일정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비대면 방식으로 인해 강의마다 공강을 신청할 날짜 규칙이 모두 달랐고, 매주 퀴즈나 작은 과제들을 필수로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공부보다는 많은 양의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주도적으로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고 언제나 끌려다녔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 달력을 구매해서 나의 일정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매일 무엇을 할지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었고 실수로 놓치는 과제나 공강 신청의 오류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림 1] 월간 계획표 작성

2) 강의 주차별로 정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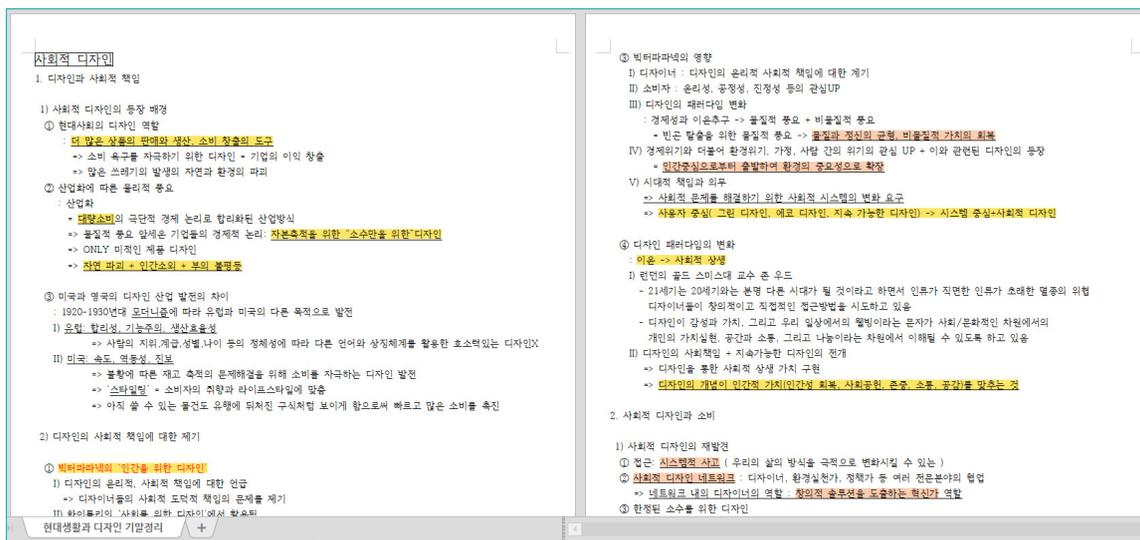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생긴 비대면 방식을 이용해 한 번에 몰려있는 시간표를 효율적으로 조정해서, 강의를 하루에 한 개에서 두 개씩 나눠서 수강했다. 이를 통해 수강 이후, 과제를 하거나 복습을 할 수 있는 여유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수업시간에 필기한 부분과 교재 그리고 추가적인 보충 자료를 ‘과목명 + 해당 주차’의 타이틀을 정한 한글 파일에 나열식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주말에 그 주에 정리한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복습을 했다.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해 강의를 요약해놓기 때문에,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이 파일의 개수들이 누적되어 찾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는 걱정이 생겼다. 그래서 강의를 해당년도-과목별-주차별로 세분화했다.



[그림 2] 주차별 정리

3) 주차별 정리내용 통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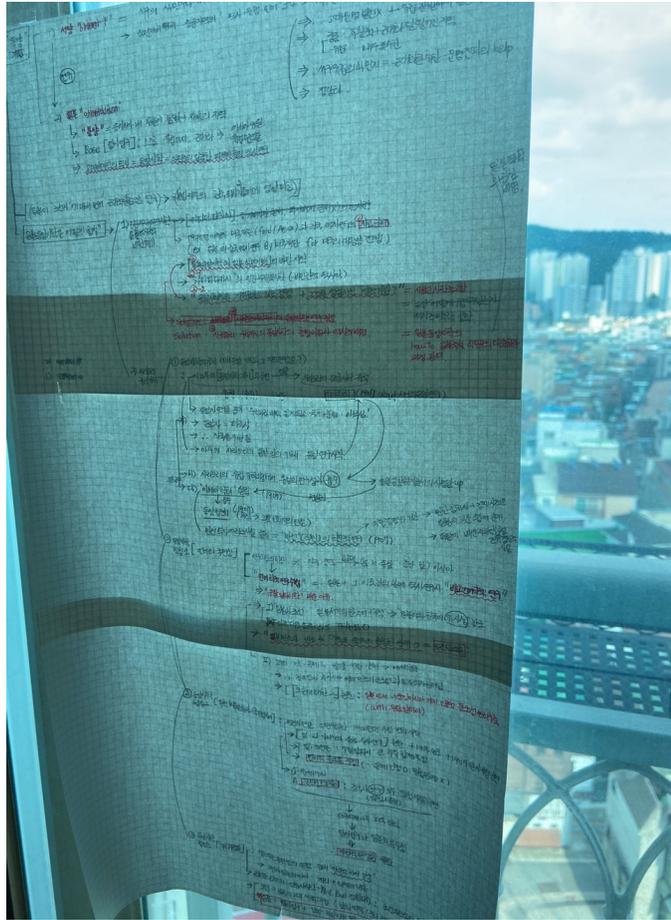
평소에는 주중은 그날 강의를 정리하고 주말은 그 정리한 내용을 복습했다. 그러나 중간, 기말과 같은 시험이 3주 남았을 때, 한글로 정리된 파일을 통해 수업 내용을 하나로 합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정리하면서 복습한다. 이 과정을 두 번 거치면 배운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주차별부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정리는 이전의 방식이다. 이번에는 여기서 트리구조를 추가함으로써 공부의 질을 높일 수 있었다.



[그림 3] 주차별 정리 내용 통합하기

4) 나만의 것으로 만들기

이전의 정리 방식은 각 주치의 내용들의 독립성을 유지시킨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했다. 그러나 트리구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고 더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하고 시험에 적용할 수 있었다. 트리구조 방식의 핵심은 독립된 각 내용들의 연결고리를 찾아 내용을 진짜로 통합시킨 것이다. A4용지 가장자리에 상위 주제를 적고 나무의 가지가 뻗어나가듯 내용을 세분화시키면서 연결성을 유지한다. 이전의 방식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의 맥락을 파악했다고 느낀 것은 오류였다. 단순히 하나의 페이지에 몰아넣은 것뿐이었다.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강의 내용을 접근하면, 다른 내용을 봤을 때 자동으로 다른 내용들이 연결되어 떠올릴 수 있다. 특히 트리구조 방식은 논문과 저서를 많이 읽어야 했던 ‘역사학의 이해’와 ‘일 본고중세사’ 수업에서 도움이 되었다.



[그림 4] 나만의 것으로 만들기

5) 답안지 미리 작성해보기

강의 요약물 유기적으로 다시 정리하면서 전체적인 맥락과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각 수업의 핵심을 알 수 있다. 이 핵심은 문제에서 출제될 확률이 높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계속 수업을 정리하면서 예상되는 문제를 적어놓는다. 그리고 통합정보에 들어가 고사문제지조직회를 통해 교수님들이 해당 강의에 대해 그동안 어떠한 형식이나 의도를 바탕으로 문제를 출제하셨는지 알 수 있었다. 이 두 과정을 거치면서 1-2개 정도의 서술형 문제를 선택하고 미리 답안을 작성하면서 트리구조를 통해 파악한 전체적인 흐름을 최종적으로 복습한다.

강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계속 같은 내용을 보는 것보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을 때 가능하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수업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차별로 배운 내용을 천천히 생각해보면서 하나로 연결하여 큰 맥락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트리구조는 학습법뿐만 아니라 글 쓰는 과제나 보고서 대회에 적용했을 때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즉 이 구조법을 통해 내용은 논리성을 갖추게 되고 그것을 바

탕으로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해하며 감상평을 쓰거나 정리를 할 수 있었다. 아직 완벽한 성적을 이루지 못했으나, 이번 방식을 시작으로 학기마다 더 보완해가면서 성적을 올릴 것이다.

역사콘텐츠학과 202010021 이예은
 한국 역사가들은 일본인들의 조선에 대한 식민주의적인 서술을 바로잡고 근대적인 방식에 입각한 역사서를 편찬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한국의 역사를 근대주의적 방식으로 해석한 일본 역사가들의 흔적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일본의 근대적 연구가 어떻게 해방 이후의 한국 역사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일본 동양사학의 형성과 정부터 살펴봐야 한다. 일본 동양사학이 어떻게 일본 식민주의와 대륙침략에 도움을 주었는지에 관한 논의는 해방 이후, 미국의 재건(Ford와 Asia)과 일본 동양사학계 자금관계에 대한 하타다 다카시 등의 비판과 정치로부터 학문의 자유를 호소하며 시작되었다. 그들은 전전 동양사학이 식민지배에 관여한 점과 이후 1945년 미국 재단의 후원을 받아 미국의 패권을 위한 현대 중국 연구를 계획한 점을 비판하였다. 그들은 단순히 일본 역사가들과 정치의 관계성만을 문제로 주장할 그럴 뿐만 아니라, 동양학사 학자들이 어떤 지적담론을 가졌고 그것을 성립시킨 지적 기반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새로운 사학적 성찰을 고안했다. 즉, 일본 동양사학자들이 '동양'을 어떻게 규정했고 어떠한 방식을 거쳐서, 어떻게 식민지배에 관여했는지를 살펴본 관점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당시 아카데미즘으로서 동양사학의 창설자로 불리는 시라토리 구라키치의 동양사학의 형성과정과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려 한다.
 시라토리 구라키치는 동양사학의 가치에 대해서 이전의 학자들과 다른 입장을 가졌다. 이노우에는 동양사학의 가치라는 강연에서 유럽의 동양 연구는 '유치'함으로 일본인에 의한 연구가 이뤄져야 하며, 이는 일본의 내력을 알게 되고, 국체를 분명하게 만들며 국민의 애국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보다 1년 전 서양사와 동양의 여러 나라를 강의하기 위해 일본에서 가까운 조선의 역사부터 연구를 시작한 시라토리는 '유치하다'는 논리가 아닌 서양인의 학자들에게 선수를 빼앗겼다고 말하며, 위기의식을 들어냈다. 이후 그는 독일에서 지리학자인 리히트 호펜 등 교수에게 지도를 받았다. 이후 기후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헝가리로 옮기고 터키어 학습을 지속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가 단순히 기후의 이유로 헝가리로 가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당시 헝가리에서 성행한 '우랄알타이'학을 공부하기 위해 이동한 것이다. 이후 이 경험이 시라토리의 동양사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시라토리는 이 과정을 통해 유학 직전에 표명한 위기의식과 일본인 동양학자로서의 사명감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리고

한국인과 북아시아 여러 민족과의 동조성을 시사하며, 동시에 이러한 한국과 유사한 일본과 대륙의 종족과 연계성을 밝힌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시라토리는 이 관계성을 서쪽으로 옮겨갔다. 이 과정에서 바로 유럽에서 배운 '우랄 알타이'학이 적용된 것이다. 그는 이 학문을 통해 우랄 알타이 어족을 사용하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헝가리 부족도 같은 계통의 동양으로 인식한 것이다. 결국 일본에서 중앙아시아까지 인종적 동조성의 논리가 구축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일본의 주변국가인 한국관계에서 시작된 식민주의 영역의 팽창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아시아관은 조선의 완전한 식민지배 이후 변화했다. 식민지배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한국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일선동조론'을 진행했지만, 한국과의 병합 뒤에는 이와 정반대인 '일선비동조론'을 주장하며 일본과 한국의 국민성의 차이를 보였다. 그의 한사 개설의 강연에서, 일본인과 한국인은 우랄 알타이라는 커다란 부류에 함께 한다고 말했다. 즉, 마치못해 동계임을 인정하지만 밀접한 관계, 일선동조론은 부정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 변화의 바탕에는 시라토리의 한일의 발전에 문제의식이 있다. 그는 과거 한일이 유사했으나, 한국의 국민은 형편없는 상황이 되었고 반대로 일본은 거대한 사업을 해내며 발전을 했고 이러한 현재 발전의 원인을 국민성의 차이라고 답했다. 그는 한국에 대해 어떻게 하면 외국을 잘 섬겨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자율성이 없는 존재로 인식했다. 또한 이 국민성의 차이는 신해혁명 이후 더욱 강화되어 팔아입구의 주장으로 연결되었다. 결국 일본은 더는 자국을 동양으로 인식하지 않고, 유일하게 서구와 대항할 수 있는 특수한 중앙적 위치에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시라토리는 이러한 비 동조론을 성립시키는 논거로써 언어 이상의 것이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유럽 당시 리히트호펜의 교수에게 배운 '지리의 차이'였다. 이제 시라토리의 인식은 언어에서 지리로 옮겨졌다. 시라토리는 리히트호펜의 인류지리학의 관점을 바탕으로한 지리결정론 이용해 조선의 국민성을 낮은 주체성 지녔다고 정의하는 일에 사용했다. 그는 한국의 국민이 무기력하고 빈약한 나라가 된 이유가 중국과 일본과 같은 3대국 사이에서 고생한 결과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날 한국과 일본이 다른 방향으로 성장한 이유인 국민성의 차이를 지리적인 차이로 인식했다. 또한 한국을 남북 2대 세력인 남방과 북방 세력이 대립하는 구도로 설명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할 점 시라토리가 정의한 일본의 위치이다. 그는 일본은 물리적으로 동양에 있으나 이미 근대화와 문명화를 통해 동양의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며,

[그림 5] 예상 답안 미리 작성하기

장려상

단 하나의 A⁺가 되는 길, <기초부터 확장까지>

행정학부 21학번 이 하 영

기준에 겪은 12년간의 학창 생활과는 달리, 대학교의 수업은 우리가 학습의 모든 과정을 직접 선택하고 설계합니다. 새롭게 선택하며 접하는 전공 수업은 저를 비롯한 많은 학생에게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선택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며, 전공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학습법이 있습니다.

1전선	3	13.50	A ⁺
1전선	3	13.50	A ⁺

[그림 1] 전공 학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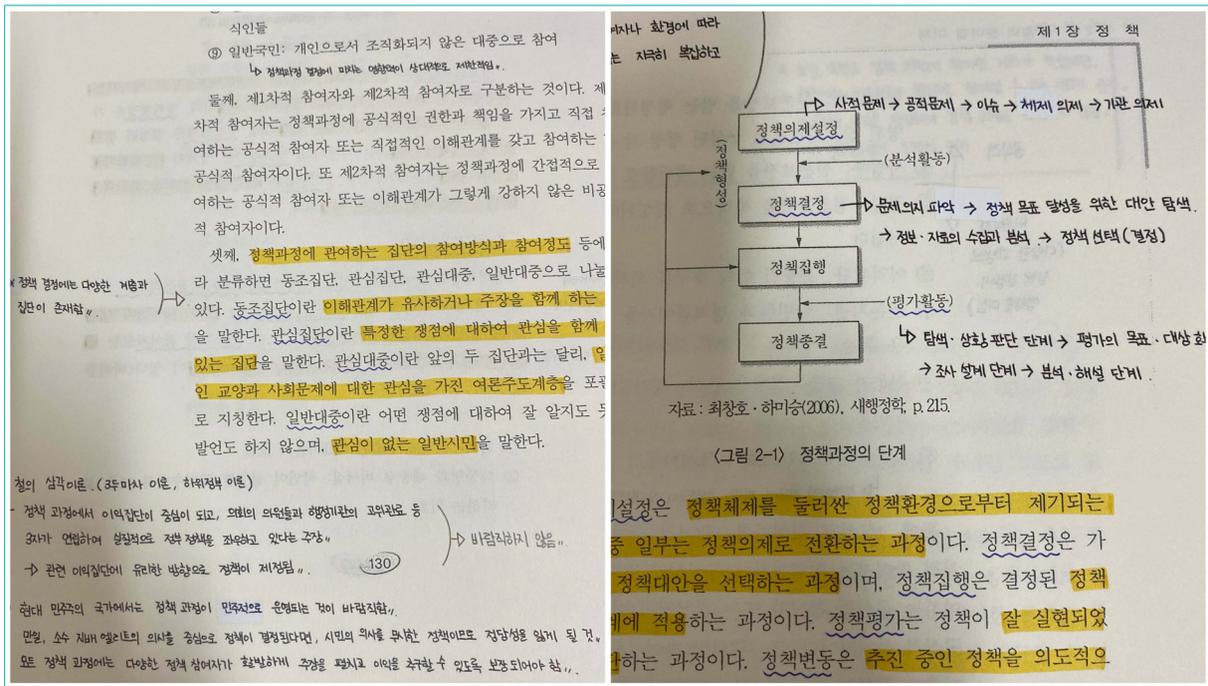
실제로, 이 학습법을 활용하며 첫 학기 전공 수업 모두 A+를 받는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안내한 학습의 중심은 <기초와 확장>에 있었습니다. 기초를 지키며 지식을 확장한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모두가 실천하며 좋은 성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초를 지키고 지식을 확장하며 A+가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학습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또한, 막연히 어렵기만 하지도 않습니다. 아래의 2가지 방법을 따른다면, 전공 수업의 좋은 성적과 더불어 전공을 통해 진로를 구축하고 사고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1. 기본에 충실한 학습법.

기반이 단단하지 않은 지형에 건물을 짓는다면, 건물은 쉽게 무너집니다. 즉, 효율적인 학습과 동시에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첫 단추는 기본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1) 학문의 기본, 「이론」

모든 학문의 기본은 ‘이론’에 있습니다. 이론을 숙지하고 이해하여야만 지식을 확장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공 수업의 이론적인 정보는 대부분 강의와 붙임 자료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의를 들으며 모든 내용을 온전히 흡수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개인 학습을 병행하며 이론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시각·청각을 활용한 학습법을 유용하게 활용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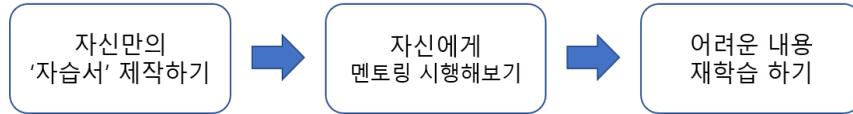


[그림 2] 학습 자료의 시각적 활용 - 자신만의 교재로 만들 것

먼저 시각적으로 자료를 가독성 있게 정리하면 강의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만의 자습서를 제작한다고 생각하고 학습에 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온라인 수업 (녹화 강의)의 특성상, 강의를 천천히 들을 수 있기에 편리하게 필기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조된 내용과 추가로 설명하시는 내용을 자신의 자료에 담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주 교재에 부가 교재와 설명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그림 2]와 같이 부가적인 내용을 여백, 혹은 보충 설명이 필요한 곳에 적어두었습니다. 필기를 따로 하지 않고 주 교재에 모든 내용을 담은 이유는 ‘간편함’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에 따로 필기한다면, 자료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양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주교재에 모든 자료를 담은 하나의 자습서를 만드는 과정은 자료의 단순화와 이론 학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각적으로 유용하게 자료를 정리한 이후, 직접 소리 내어 자신에게 내용을 설명하는 청각화 과정을 진행합니다. 스스로가 멘토가 되기도 하고 멘티가 되기도 하며, 말하면서 학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직접 강의 내용을 가르치며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목소리를 스스로 들으며

한 번 더 학습할 수 있으므로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집니다.



[그림 3] 이론 학습법 정리

결론적으로 이론 학습법은 [그림 3]의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자신의 맞춤형 교사가 되어 자신이 필요한 자료를 제작하고 교육하는 과정은 이론 학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론의 기반을 단단히 다진다면, 이는 곧 전공 지식 확장을 든든하게 지지해줄 것입니다.

2) 자세의 기본, 「시간 관리」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우리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체계적인 시간 관리입니다. 현재, 시간 관리는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실천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수업이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나태해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출해야 할 과제의 수가 많아지면서 일정이 꼬이고, 복잡해지는 경우가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흘러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고, 과제의 제출 기한을 넘긴다면 성적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하기에 엄격하게 시간을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림 4] 달력을 활용한 시간 관리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한 시간 관리 방법은 달력을 사용하여 제출일과 강의 마감 기한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마감 기한의 날짜만 적어두는 것이 아니라 마감 시간까지 기록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감 기한이 자정

까지인 경우가 많지만 때때로 정오 혹은 그 외의 시간인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별도의 다이어리 작성을 즐기지 않았기 때문에 달력에 기한을 적어두는 것으로 모든 시간 관리를 진행했습니다. 각종 약속, 아르바이트, 과제 마감일을 적어놓으며 바쁜 주간과 여유가 있는 주간을 분리하였습니다. 이후, 가장 급한 일과 여유가 있는 일을 우선순위로 나누어 하나씩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강의 출결·과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달력에 기록하는 ‘작은 습관’을 먼저 들여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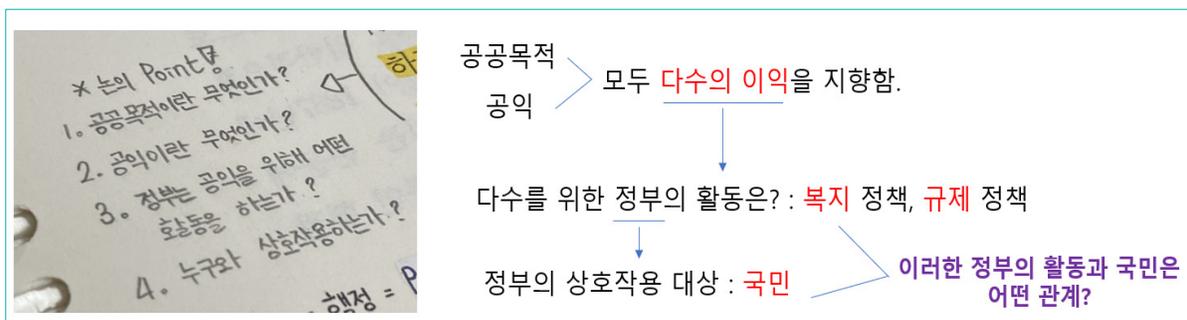
제출 기한을 잊거나 강의를 제 시간에 수강하지 못하는 것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실수입니다. 할 일을 기록해두고 기한에 맞게 일정을 마무리하려는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업무를 처리하면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기에 틈틈이 여가를 즐기며 자신의 발전을 더욱 도모할 수 있습니다.

2. 단 하나가 되는 학습법.

위의 모든 과정을 습관화하였다면, 좋은 성적을 위한 기술적 응용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자신만의 특별한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학습 요소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활용하며 단 하나의 특별한 학습법을 완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1) 키워드를 활용할 것.

한 과목을 학습할 때, 가장 체계적인 접근 방법은 키워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중요도를 기준으로 키워드를 분류하며 우선순위에 따른 선택과 집중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과제물 등에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서술한다면, 내용 구성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키워드 활용 요령을 파악하는 것은 성적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림 5〉 키워드 도출과 사고 확장

키워드를 도출하는 요령은 강의 중에 강조되는 내용에서 파생된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지문을 단어 단위로 쪼개며 각 요소가 가지는 논점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림 4]의 좌측은 행정학개론을 학습하며 발생한 논점을 정리해본 자료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공목적’과 ‘공익’의 본질에 집중하며, 4가지의 질문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질문하고 논점을 지정해

며, 탐구가 필요한 부분을 찾고 부가적인 정보를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논점을 지정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논술형 시험에서 요점을 빠르게 찾고 논점을 찾아 서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식은 먼저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문점을 설정하며 직접 탐구해나갈 때 지식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며 논리력을 키우는 학습법을 추천합니다.

기본 자료에서 주요 내용을 파악한 이후에는 각각의 내용을 연결하여 사고를 확장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꼬리물기’ 사고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질문에 답한 내용에 꼬리를 물고 연쇄적인 질문을 하면서 또 다른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마인드맵 유형으로 질문과 관련된 파생어를 적어봅니다. 동사·형용사·명사를 가리지 않고 모두 나열한 후, 관련된 내용을 연결합니다. 연결된 내용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질문을 하고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사고를 확장합니다.

모든 과정을 마친 후, 중요해 보이는 단어를 찾아 다른 색으로 표시합니다. 표시된 단어가 곧 내용의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선정한 키워드를 관련도와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지정하고, 순위가 높은 키워드를 먼저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과제 혹은 시험에서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면, 키워드를 중심으로 스스로 쌓은 사고를 추가해 서술한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에 대해 서술하십시오.’ 유형의 지문이 나온 경우, 기존의 이론적 내용을 서술하고 추가로 사고를 확장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론 지식은 전공생이 모두 같은 내용을 적을 수 있지만, 추가적인 자신의 사고 확장을 적음으로써 단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술한 글이 경쟁력 있고, 돋보이게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2) 다양한 어휘를 활용할 것.

대학에서 시행하는 과제와 시험 대부분은 서술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학창시절에 봐온 기존의 객관식, 단답식 평가 유형과는 다르게 긴 글로 내용을 표현하는 유형이 많았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유형이었기에 생소하고 서툴렀습니다. 글을 작성하면 작성할수록 같은 어휘를 반복하며, 정해진 정의만 서술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글을 지루하고 특색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해결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단어와 구조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양한 어휘를 서술하여 완성작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은 ‘가변성이 없는, 정태적인’ 등의 또 다른 어휘로 대체하여 풍부한 서술적 구성을 유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네이버 국어사전을 통한 유의어 검색이었습니다. 기존에 생각한 단어를 검색하여 뜻이 유사한 다른 어휘를 찾아 서술하였고, 어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글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글 프로그램의 찾기 기능(Ctrl+F 단축키)이 실용적이었습니다. 자주 사용한 듯한 단어를 검색하여 빈도를 확인하고 교체하는 과정에서 유용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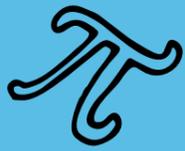
어휘력은 글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표현하는 하나의 거울과 같습니다. 단순하게 어휘 활용 양상만 다르게 만든 것이지만, 이 작은 변화는 성적을 향상할 수 있는 큰 변화로 다가올 것입니다.

3. 마무리

학습이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지식과 자신의 능력을 융합하여 발전하는 모든 과정이 곧 학습입니다. 제시한 학습법은 교과서에 나올법한 당연하고 도덕적인 내용이기 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을 중요시하고 확장하는 자세와 함께 자신의 전공 지식을 융합한다면, 그 모든 과정이 하나의 학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학습법은 전공 학습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응용한다면, 교양 수업 혹은 취업 준비 등에 다방면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첫 시작은 낯설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발돋움을 통해 기본을 잡고 앞으로 한 발자국씩 나아가며 응용한다면, 모두가 자기 주도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상명대학교의 소중한 인재들이 위 학습법을 통해 각각의 진로를 더욱 밝게 빛낼 수 있기를 기원하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21학년도 1학기 자기주도적 학습전략 강화 공모전



$$(a+b)^2 = a^2 + 2ab + b^2$$



상명대학교
SANGMYUNG UNIVERSITY

교수학습개발센터
CENTER FOR TEACHING & LEARNING



$$S = vt$$

